

오늘 우리  
그녀들과 마주서다



2호  
영남대학교  
- 1111번  
전통문화원

두 고 보 시 오 .

산 이 움 직 이 는 날 이 올 테 니 .

내 가 그 령 게 말 하 지 만

사 람 들 은 믿 지 않 지

그 냥 잠 시 동 안

산 이 자 고 있 었 던 거 야

예 전 에 는

산 들 이 모 두 불 속 에 서 움 직 였 어

하 지 만 당 신 들 은 믿 지 못 스 할 거 야

이 사 람 아

그 러 면 이 건 믿 겠 지

이 제 자 고 있 던 여 자 들 이

모 두 일 어 나 움 직 일 거 야



# 내리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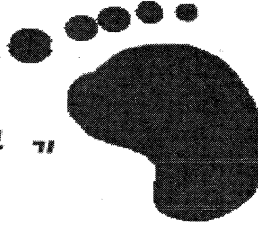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행일정	2
<b>Majusum 1</b>	3
<b>7월 10일(일): 마음트고 마주보기</b>	4
여성사 전시관- 기획전시 "내일이 오면.."	4
나해석: 글과 그림을 통해 본 그녀의 삶	5
강연 1: 여성의 역사- 소현숙 선생님(경희대 강사)	8
첫째 날 마당- 추억을 남기고, 글을 쓰고	13
<b>Majusum 2</b>	14
<b>7월 11일(월): 상처, 겨안음, 희망</b>	15
나눔의 집	15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들...	16
여성과 전쟁	19
토지문학공원	24
박경리 선생의 삶과 토지의 의미	25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의 지위와 역할	27
강연 2: 자아성장 미술치료- 최금란 선생님(속초 성폭력 상담소)	33
둘째 날 마당- 추억을 남기고, 글을 쓰고	34
<b>Majusum 3</b>	36
<b>7월 12일(화): 흩어진 기억, 여기 다시 모이다</b>	37
허난설헌의 작품과 삶	37
강연 3: 허난설헌을 말하다	41
셋째 날 마당- 추억을 남기고, 글을 쓰고	47
<b>Majusum 4</b>	49
<b>7월 13일(수): 미래를 향해 쏜다.</b>	50
수요시위와 정대협	50
넷째 날 마당- 추억을 남기고, 글을 쓰고	51
기행에 더욱 도움이 되는 책	52
기행에 더욱 감동을 줄 영화	54
함께 부르는 노래	56

# 40일간의 여정

	10일(일)	11일(월)	12(화)	13(수)
6		기상, 세면	기상, 세면	
7		- 요가 - 일본군 '위안부' : 조선대 할머니들께 드리는 선물 만들기	- 요가 - 문학작품을 통하여 본 허난설헌: 흥익대	기상, 세면
8		식사	식사	식사
9		경기도 광주로 출발 일본군 '위안부' 영상 보기	허난설헌 생가 - 2인 1조 소나무 숲 산책	수요시위 준비
10		"나눔의 집"	"허난설헌을 말하다" - 백일장	일본 대사관으로 출발
11	점심 먹고..		먹거리 체험 - 초당두부	수요시위 참가
12	- 경희대로 집결 - 조 확인, 조별시간			
1	- 일정과 코스 교양 - 여성사 전시관으로 출발	강원도 원주로 이동	경포대로~!	홍대로 출발, 식사
2	- 나혜석에 대해..	토지문학공원 관람 "문학과여성 세미나" : 경희대, 영남대		강릉대로 이동, 식사
3	- 여성사 전시관 관람			
4	"신여성": 경희대			
5	경희대로 출발	식사	나의 성애사	집으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기행수기와 추억의 사진 올리는거 잊지 마시구요~ majusum.cyworld.com
6	저녁식사, 조별시간	- 강릉대 도착 "자아성장 미술치료" / 최금란 선생님	서울로 출발	
7	"여성의 역사"			
8	/ 소현숙 선생님			
9	조별 토론	'여성과 전쟁 세미나' : 동아대, 인제대, 목포대 - 나는 갈등해결을 어떻게 하나	서울 도착	
10	발대식		어울림 마당	
11				
12	세면, 취침	세면, 취침		

7월 10일

마음 뜨겁게, 따주보기



시간	일정
12	- 경희대 집결, 짐 풀기 - 조 확인, 조별 시간. <조 이름, 조 구호, 깃발 제작>
1	1:00- 일정과 코스 교양, 여성 노래 배우기: 힘 모아 힘을 줘 1:30- 여성사 전시관으로 출발
2	2:30- 여성사 전시관 관람 4:00- 나해석 다큐
3	
4	
5	5:30- 경희대로 출발
6	6:30- 도착, 저녁 식사, 조별 시간
7	7:30- "여성의 역사" 강의/ 소현숙 선생님 신여성에 관한 세미나(경희대)
8	
9	조별 토론과 발표
10	<발대식> 10:00- 명찰 만들기
11	10:25- 기행 각오 쓰기, 기행 단장님 인사 11:00- 조별 구호 발표, 소개(참가자 인사), 규율 다짐 선언
12	세면, 취침

## 여성사 전시관 특별 기획전

### 내일이 오면 ... Will You Love Me Tomorrow

여성사전시관에서 2005년 6월 23일 ‘여성부’ 에서 ‘여성가족부’ 로의 출범을 기념하는 특별 기획전 「내일이 오면 ... Will You Love Me Tomorrow」 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개인이 다른 개인을 만나면서 그리고 가족을 시작으로 사회라는 집단을 구성하면서 야기되는 감정의 차원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큰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체성들은 가족과 사회의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관계 맺게 되는 인간사이의 관계를 젠더화하여 동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 개인/가족/사회가 야기하는 관계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서울여성영화제의 아시아 단편경선에 출품했던 작품 중 3편을 선택 하여 전시관에 마련된 상영관에서 상영한다.

제목 : 내일이오면... Will You Love Me Tomorrow?

일시 : 2005년 6월 19일 ~ 7월31일

장소 : 여성사전시관

주최 : 여성부|여성사전시관

주관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참여작가 : 김두진, 서은애, 송상희, 수경, 신영미, 이정은+남정, 피진컬렉티브, 데이, 허윤희

단편영화 아카이브 :

사과(감독 김민숙/ 2005/ 22min/ DV/ colour)

흡연모녀(감독 유은정/ 2004/ 21min / 35mm / colour)

조우(감독 전선영/ 2004/ 10min/ 35mm/ colour)



정은씨와 남정씨가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 “피쉬랜드의 밤”

# 나혜석(羅蕙錫 : 1896~1948) 글과 그림을 통해 본 그녀의 삶

## 나혜석 토크쇼 - 김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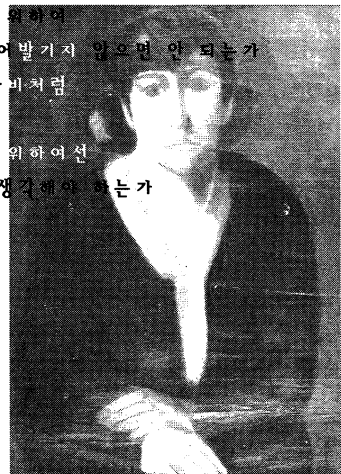
친구여, 나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다네.

저녁을 잘 먹고  
실내악이 흐르는 유리창 앞에 고양이처럼 앉아  
어둠이 글썽글썽  
창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오면  
어디선가 아직 잠들지 못한 바람이 있어  
풍선처럼 고평화  
내 몸을 내가 찌르는  
하얀 바늘의 살육의 느낌 같은 것,  
풍선 속의 바람은  
고요히 스트르  
마치,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간단히 숨을 거두고  
부네탈과 미알탈 같은 것들이  
벽 위에서 휴지처럼  
구겨져 떨어지는 가벼운 시간

친구여, 세상엔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가면을 벗어 조용히 응접실 탁자 위  
가족사진 옆에 포개어 놓고  
나의 시간도 아니고  
너의 시간도 아닌  
'가정의 날'이라는 영원한 반공일 같은  
어정쩡한 주부의 직업을 달고  
에미는 선각자였노라---  
추운 겨울날  
다리를 건너간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부네와 미알탈이 걸려진  
실내악의 방을 나와  
다리는 건너  
저멀리 피안으로 흘러가는 여인들을 보여주지  
사자와 고양이는 똑같이 고양이파에 속한  
맹금류의 동족인 것을, 여인들은 머리칼위에 빛나는  
야성의 화관을 쓰고  
조용히 슬픈 선각의 사자후를 남겼네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고

그리고 나혜석은 거리에서 죽었어  
행려병자가 되어 쓰러지면서  
그녀는 원시림같은 처녀림같은  
산소용접으로 튀는 파란 불꽃같은  
쓰러지는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정녕  
아름다웠지.  
여자는 삼계에 집이 없어  
아버지의 집도  
남편의 집도  
아들의 집도  
여자의 집은 아니어서

친구여, 나에겐 그런 예감이 있다네  
나혜석은 거리에서 죽어서도 울게 묻히지 못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나에게로 와서  
내 가슴을 위패삼아 머물고 있으니  
나 또한 미신처럼  
그녀의 신위를 비밀히 모시고 있으니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자신을 통째로 찢어발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검정나비처럼 흰나비처럼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선  
항상 비명횡사를 생각해야 하는가



정월(晶月) 나혜석(羅蕙錫)선생은 수원의 부유한 개명 관료의 딸로 태어나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는 최초로 일본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서 유화를 공부한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에서는 첫 번째로 개인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유화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힘썼고 초창기 「이른 아침」(早朝)과 같은 목판화로 민중의 삶을 표현했으며, 1922년부터 1932년까지 해외 여행을 떠났을 때를 빼고는 매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과 특선을 한 재주 있는 화가였다.



나혜석은 단지 화가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여성이 각성하여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살림살이를 개량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담은 여러 논설들과 신여성이 주변의 낯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 「경희」를 쓴 근대 최초의 여성작가였다. 또한 3·1운동 때는 여학생들을 만세 운동에 참가시키기 위해 활동을 하다가 다섯 달 동안 감옥살이를 겪었으며, 중국 안동현(현재의 중국 단둥시) 부영사가 된 남편을 따라 안동현에서 살 때는 국경을 넘어 다니는 외교관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편의를 보여주기도 한 민족주의자였다. 특히 나혜석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주장을 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생활 속에서 온몸으로 실천해 나간 진보적인 여성 해방의 사상가였다.

일본 유학시절 좋은 혼처가 나섰으니 공부를 그만 두라는 아버지에게 맞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했으며, 결혼식 때는 예술활동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남편에게 받아내었고, 화가로 3남매의 어머니로 거기다가 외교관의 아내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잘 해내었던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던 나혜석은 자신의 그림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과 아내의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남편이 예술 세계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가중된 가사노동에 지치기 시작했고 마침 남편과 함께 유럽과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기자 과감하게 1년 8개월간의 여행길에 올랐다.

나혜석은 서구 여성들의 좀더 인간생활을 위한 노력을 목격하고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새로운 그림의 세계에 눈떠 갔다. 그런데 그 파리에서 남편이 아닌 함께 예술을 논할 수 있었던 최린과 사랑에 빠졌고 귀국 후 결국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 이혼을 하고 나온 후 나혜석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비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정조관념을 지키라고 하는 사회 관습을 비판하고 나아가 그런 관념은 상대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해체되어야 한다는 시대를 앞서가는 주장을 펼쳤다.

현모양처가 여성의 모범상으로 굳어버린 시대에 자기의 예술을 추구하다가 이혼을 당하고 빈몸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여성을 파멸로 몰아 넣은 두 남자와 그들 남성이 멀쩡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사회 관습에 도전한 나혜석이 연 전람회에 대한 조선사회의 반응은 차가웠고, 사회의 냉대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쓸쓸한 생활을 하면서 나혜석의 심신은 서서히 병들어 갔다.

S의 남편이 바람나 멋대로 즐기지만 그 아내는 대불평을 가진 채 살아가는 가부장적인 기만적 일부일처제를 개탄하다 R은 이렇게 말한다.

“남자는 칼자루를 주니 세음ियो 녀자는 칼날을 쥔 세음이니 남자하는데 따라 녀자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지. 고약한 제도야. 지금은 계급투쟁시대지만 미구에 남녀전쟁이 날것이야. 그리고 다시 여존남비시대가 오면 그 사회제도는 여성중심이 될 것이야. 무엇이든지 고정해 있지 안코





순환하니까.” (모델-女人日記, 1933, 244쪽)

게다가 화재로 그림이 다 타게 되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된 충격으로 신경쇠약과 반신불수의 몸이 된 나혜석은 자기만의 방을 갖지 못한 채 절집들을 떠돌아 다녔다.

<해인사풍경, 1937 가장>: 불운했던 그녀의 말년의 풍경화들은 아래쪽이 대체적으로 어둡게 표현되었다.

해방 후에는 서울의 한 양로원에 맡겨졌으나 그는 걸핏하면 몰래 빠져 나왔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집을 쌀 때면 늘 기운이 솟아오른다고 했던 나혜석은 어느 날 양로원을 나선 뒤 종적이 묘연해졌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서울의 시립 자제원 무연고자 병동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무덤은 어디 에도 남아 있지 않다.

나혜석은 여자도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온몸으로 살아간 화가이며 민족주의자이고 여성해방론자였다. 자신이 내딛는 한 걸음의 진보가 조선 여성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개인 체험을 바탕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인간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의 억압성을 드러내어 해체하는 글들을 써서 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면서도 시대를 앞서 살아갔던 나혜석은 우리에게 여성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다.

## 인형의 가(家)

나혜석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저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털어 맞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내 이계 깨달도다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 다오

많은 암흑 행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 놓은

장벽에서

건고히 단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 주게

여성의 눈으로 한국사 읽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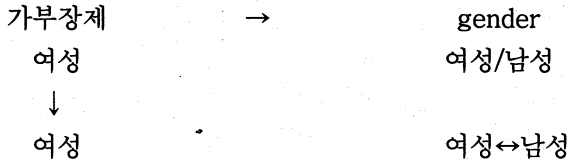
## 여성사란 무엇인가

### 1. 등장 배경

- 여성운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학계에서 연구 시작. 한국에서는 1980년대 여성운동의 성장에 영향을 받음. 1990년대 이후 활발.(대학에서 여학생 수의 폭발적 증가, 일본 군위안부 문제의 충격)
- 역사학 내부에서의 새로운 흐름의 등장과 관련: 정치경제사 중심이었던 기존 역사학에 대한 비판. 사회사, 생활사, 문화사, 일상사, 미시사 등 새로운 역사학이 등장. 가족, 일상생활, 사회운동, 하층계급, 사회적 약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 증가.

### 2. 명칭 문제

- Women's History: 여성사. 무난한 용어. 포괄범위 넓음.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를 모두 포괄. → 연구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음. 여성억압적 입장에서도 서술한 연구도 포함. (ex: 이능화 『朝鮮解語花史』: 기생이야기.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기생을 대상화. / 신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흥미거리. 신여성을 향락, 타락한 여성이라 비난)
- Feminist History: 여성해방주의 역사, 여성주의 역사. Women's History에 대한 비판. 여성해방이라는 관점, 전망 하에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역사의 주체로. 여성 억압의 기원을 해명하려 노력. 가부장제의 기원 작동원리를 밝히려는 연구.
- Gender History: 성의 역사, 성별사. 젠더(gender)는 1970년대부터 여성학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용어. 여성학이 제도화되면서 '여성'이란 말을 대체. Joan Scott은 젠더가 여성에 대한 단순한 대체가 아닌, 역사연구의 분석범주로 삼을 것을 제기. 여성이 있는 곳은 모두 여성사 연구대상인가? 여성사가 여성만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에 반대. 남녀 모두 포함하는 관계의 문제. 젠더는 사회조직의 중요한 축(원리). 여성/남성의 힘을 다르게 조직화하는 원리.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상징하는 개념.  
→ 젠더를 분석범주로 삼는 것의 의미: 기존의 가부장제이론에서는 억압받는 '여성'이 분석단위. 그런데 '여성(대문자)'이라는 범주로 '여성(소문자)'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 '여성'이 어떤 분석범주가 될 수 있는가? 분석범주로서 '젠더'가 필요.



사회조직 원리: race/ class/ gender 관계의 문제 중요. (ex: 한국에서의 러시아, 필리핀 여성의 성매매 문제: 분석 범주로서 race/ class/ gender 모두 개입)

### 3. 여성사 방법론

- 서술방식:

1) 여성명사의 역사: 평전, 여성인물사. 여성이라는 이유로 홀대받아온 인물을 발굴.(나혜석, Mary Wollstonecraft). → 가장 오래된 서술방식.

2) 공헌사: '여성도 거기 있었다네' 여성도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밝힘. 여성주체성 강조. (ex: 프랑스 혁명에서 여성의 참여, 3.1운동에서의 여성의 참여)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심화.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은 기존 역사학과 동일. 전복적 힘이 약함.

3) 여성에게 중요한 사건 재평가: 여성운동, 여성참정권운동, 산아제한운동, 성매매반대운동...(ex: 『여성인권운동사』)

4) 주류 역사학의 통념 비판: 기존 역사학의 설명이 남성의 경험에 한정된 것임을 밝힘. (ex: 시대구분 문제. 조안켈리: '여성에게도 르네상스가 있었는가'. 르네상스시대: 휴머니즘, 인문학의 발전, 인간에 대한 관심 증대. 근대의 여명기로 위치. 그러나 여성에게는 여성의 공적활동이 위축, 정조관념 강화, 남성에 대한 의존 강화)

5) 새로운 주제의 제기: 역사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 예를 들면 출산, 성관계,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사적 영역을 역사연구대상으로 파악.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 사적영역. → 역사학의 범위를 넓혀 줌. (ex: 『사생활의 역사』, 『출산의 역사』, 『피임의 역사』) 그러나 남/공, 여/사 영역분리를 공고화시킬 위험성이 있음. 여성사가 사적영역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 제기.

- 사료문제: 기존의 역사사료에 대해 비판:

1) 사료 자체가 남성 중심적 전제를 가진 편협한 것(ex: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일생동안 일하고 퇴직하는 자를 기준. 남성노동자. 간헐적으로 일하는 기혼여성은 무직으로 처리. 여성은 통계에 잡히지 않음. 통계 조사때 남성이 답변. 부업하는 아내에 대해 무직이라 표현하는 경우.)

2) 기존역사에서 등한시하던 자료 사용: 일기, 편지, 자서전, 구술자료.

## 일본군 성노예제

### 1. 용어

- 정신대(挺身隊)
- 중군위안부
- 일본군위안부
- 일본군성노예

### 2.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 공창제(가부장적 질서) + 제국주의 전쟁  
→ 여성을 성적 대상물, 남성을 국가에 충성하는 총알받이로 간주.

#### 1) 위안소의 설치

-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설립되기 시작. 1937년 이후 본격화.
- 명분은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 방지, 군인의 성병방지, 사기 진작
- 일본, 조선,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일본군의 전선, 주둔지마다 설치.
- 초기에는 일본여성(공창)을 끌고 갔으나 군인들의 사기저하를 염려, 조선여성을 동원. 점령지의 여성들도 위안부로 동원.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인...
- 전쟁 말기 섬에서는 별도의 시설도 없이 참호, 산속, 동굴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간이 이루어짐.

#### 2) 위안소 운영방식

- 군직영위안소: 일본군이 직영
- 군전용위안소: 일본군의 감독과 통제하에 민간업자, 유곽주인이 위탁 경영·관리
- 군지정위안소: 필요할 때 군 주변의 유곽을 점거하여, 일정기간 군대용으로 지정하여 이용.  
→ 초창기에는 일본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다가 1939년 무렵부터 민간업자가 대대적으로 진출, 군의 허가를 받아 위안소를 경영. 이후 1943년 후반부터는 다시 군이 직접 위안소 설립. 인력, 물자 동원이 힘들어지면서 위안소 설립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 부대의 이동과 함께 위안부도 이동. 민간인 운영 위안소도 군 직영과 차이 없음.

#### 3) 여성들의 동원

- 취업사기, 납치, 인신매매 → 모두 일본군, 경찰이 개입. 업자들을 전면 지원하고, 운송도항증 등을 발급. 당시는 戰時이므로 수송은 모두 군수송선에 의한 것. 수송선에는 군인, 군속, 군마, 군견만 실을 수 있었음. 군위안부는 군수품으로 취급.

### 3. 군위안부들의 생활

- 군위안부의 수: 8만 ~ 20만. 군인:위안부= 40:1 혹은 100:1
- 성병검사: 주 1회\*내지 2회
- 지정된 장소 외에는 출입 금지.
- 위안소 규정: “위안부를 천황의 하사품으로서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로 대할 것” 이라 명시. → 성노예적 존재.
- 피해자들 위안소로 끌려오자마다 강간, 성병검사, 구타, 감금, 고문....폭력의 극치.
  - ① 성병 방지를 위해 샷쿠(콘돔)를 사용. 그러나 성병 만연. 606주사(수은주사)의 남용
  - ② 임신했을 경우에는 강제 유산시키거나, 아이를 낳은 즉시 빼앗아 감. 일본식으로 호명. 피해자들끼리는 친밀하지 않음.→ 감시당하는 생활. 성노예적 생활 이외에도 낮에는 빨래, 바느질 등 노동력 착취

### 4. 귀환

- 1945년 일본 패전 후 위안부를 집단 사살하거나 전쟁터에 버려 둠.
- 살아남아 귀국한 경우에도 육체적·정신적 피해 심각, 비참한 상태. 정조를 훼손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포기하고 현지에서 남은 사람도 있음. (ex: 훈할머니)

### 5. 귀환 후의 생활

#### 1) 육체적 후유증

: 수은중독, 자궁적출 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많음. 성병이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생하는 경우도 많음. 이외에 폭행의 상처, 전투의 와중에 입은 부상 등도 심각.

#### 2) 정신적 후유증

: 정신불안, 대인공포증, 우울증, 결벽증 등 심각. (ex: 배봉기 할머니)  
→ 정상적인 가정을 갖지 못함.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거나 첩이 됨.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 출산이 불가능할거라는 두려움 때문. 직접 생계유지, 식당, 파출부, 막노동....기지촌.....가난을 벗어나지 못함.

### 6.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쟁점

#### 1) 순결이데올로기의 극복.

- 순결이데올로기: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
- 1987년 부천시 문귀동 성고문 사건: 성고문을 폭로한 권인숙을 정신병자 취급. 이에 맞서 피해자 여성이 스스로 당당하게 피해의 사실을 드러내어 문제제기.
  - 순결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성폭행 가해자 처벌을 주장.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 문제 제기. 사회여론 환기.
- 기생관광반대운동: 1980년대 말 교회여성연합회 등이 주축
- 정대협 결성: 1990년 윤정옥(전 정대협 공동대표)이 위안부 문제 제기, 피해자 신고 전화 가설. → 1991년 피해자 김학순 증언. → 사회쟁점화. 정대협을 중심으로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왜곡 바로잡기 등을 요구. 나눔의 집 설립.

## 2) 증언의 가치

- 일본: 패전시 증거 인멸. 매춘. 군 관계 없다, 증거 없다, 증언은 거짓말이라 주장. 구술 증언의 가치 역사에서 쟁점화. 객관성/주관성, 문서기록의 한계

## 3) 국가배상/개인청구권 문제

- 일본: 1965년 한일협정(김종필-오히라 각서,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원조 2억달러 총 5억 달러에 국교 정상화)으로 국가배상 다 끝났다고 주장. 한국정부도 이에 동의.
  - 개인청구권 문제 제기: 국가가 개인의 피해를 대신 청구할 수 없다.
- 일본국가: 개인배상 거부. 보상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
- 일본 우익 역사왜곡: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위안부문제를 다루는 것을 자학사관이라 표현, 역사책에서 삭제.
-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 유엔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다룸.
- 일본내에서의 재판이 거의 실패. 미국재판 쪽으로 관심을 돌림.

## 4) 민족주의와 젠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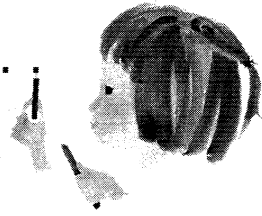
- 민족의 수치 담론: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민족적 자존심이 훼손 당한 문제로 환원시킴.
  -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남성, 나라의 자원으로서의 여성.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전제.
  - 순결을 잃은 여성의 불행을 당연시: 육체적 파괴 훼손→ 파괴된 육체. 정상적인 여성이 아님. 따라서 50년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것은 당연. 우리 사회의 순결이데올로기, 가부장성을 문제삼지 않고 일본 탓만 함.
  - 개인의 상처가 민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가?

## 5) 국가/국민, 역사적 책임의 문제

- 일본 국민기금. 와다 하루키: 국가와 국민, 개인을 동일시. 일본 국민으로서의 책임 호소.
- 우에노치즈코: 국가로 환수되지 않는 개인, 개인의 입장을 중요시.
  -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국가와 동일시한 국민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 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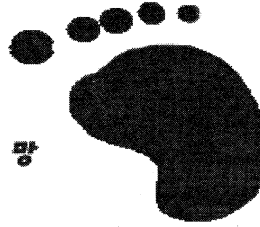
7월 10일 .마음트고, 마주보기

추 억 름 남 기 고 , 름 름 쓰 고 .



7 월 11 일

상 차 , 껌 안 품 , 희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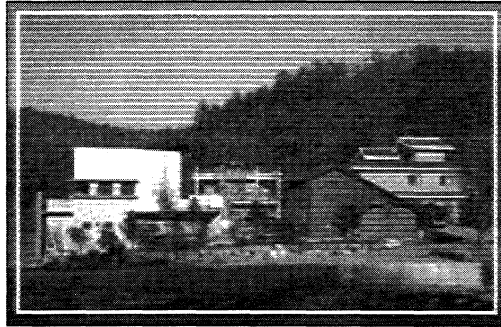


시간	일정
6	기상, 세면
	7:00 - 요가(조선대)
7	7:30분 - 일본군 '위안부' 교양(조선대) 할머니께 드리는 그림과 편지 만들기
8	8:30 - 경기도 광주로 이동, 아침 식사 <차에서..>
9	11일 일정 교양,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 보기
10	<나눔의 집>
11	- 관련 영상 보기, 할머니와의 대화, 선물 드리기, 역사관 관람, 점심 식사
12	
1	강원도 원주로 이동
2	2:30 - 토지문학공원 도착, 관람 3:00 - 주제 발표
3	- 여성/남성의 시각에서 쓰여진 소설 비교: 경희대 - 소설에서 보여지는 성과 결혼: 영남대
4	4:30 - 강릉대로 이동
5	저녁 식사
6	6:00 - 도착, 짐 풀기
7	6:30 - 자아성장 미술치료 프로그램 / 최금란 선생님
8	
9	9:00 - 여성과 전쟁 세미나 - 전쟁 속의 여성: 동아대 - 전쟁 이후 여성의 삶: 인제대 - 군사주의와 여성: 목포대
10	
11	10:00 - 나는 갈등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테스트 11:30 - 세면
12	취침



##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1992년 6월에 결성된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불교계 및 사회 각계에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처음으로 <나눔의 집>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나눔의 집 전경>

이후로 명륜동,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조영자님께서 기증해 주신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소재 650여평의 대지에 180여 평(생활관 두 동과 법당 및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한 동)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였다. 현재는 850여평의 대지에 98년 개관한 역사관을 포함 300여평의 건물이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은 매주 한글수업과 함께 그림수업을 통해 익히신 그림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그림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상을 역사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를 통하여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 개인의 고통을 사회의 문제로 다양히 밝힌 생존자



꽃다운 나이, 일본군들에게 끌려가  
짓밟히고 잃어버린 인생  
되찾는데 오십년 세월이 걸렸다

이제는 주름투성이 할머니 되었지만  
용기 있는 증언 그 증언의 힘으로  
우리는 그 진상을 알게 되었다.

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들의 세계에  
이제 환한 빛을 쏘여주자  
돌아갈 수 없는 시절 할미꽃이 되었다 해도  
색갈 옷 펼쳐입고 날개를 펼친다.

여기서 다시 진정으로 원하던 그들의 삶을 산다.  
구천을 떠돌던 슬픈 녀도 이제 승천하게 하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시화와 운동의 전개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 개인의 고통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됨을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에 의해서 재해석,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 간의 그룹을 이루면서 '개인적'이고, '사소'했던 고통을 '진실'로 믿어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치적 경험으로, 역사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92년 1월 8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하고 있으며, 현재 664차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생존자 증언집이 발간되고,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와 같은 영상물도 제작이 되었다. 최근에는 재미극작가 김정미에 의해 2004년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정신대 할머니들의 사는 이야기 'Comfort Women'을 한국적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 '나비'라는 연극도 연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의 범죄자 처벌과 생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명예와

인권의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벌였다.

## 단어 선택에 담긴 정치적 의미

일본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본군'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려왔다. 정신대(挺身隊)란 이름 그대로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의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정신대라는 용어가 법으로 제정, 일반화된 것은 1944년 여자정신 근로령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원래 남성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군수공장에 나가 일하게 한 노동대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다른 것이다.

일본군은 이 여성들을 그밖에도 '작부(酌婦),' '창기,' '추업부'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용어는 아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 제도를 만든 일본군의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줄 뿐 피해자 측의 시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활동을 통해 붙여진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표기가 가장 정확한 의미이다. 그러나 할머니들 스스로 “노예”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따옴표를 붙여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강제 동원이나, 자발적인 선택이나..

군'위안부'로 끌려갈 당시 여성의 연령은 10대 초의 미성년에서부터 20대 후반의 기혼 여성도 있었다. 이들 여성은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취업사기를 당해서 위안소로 간 경우가 많았다. 또는 위안소 업자나 모집인들에 의해 유괴당해 인신매매되기도 하였으며 관리, 경찰, 군에 의해 강제 납치당하기도 했다. 설사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생계벌이에 있었던 것이지 성적 착취를 당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군표를 내고 일본군들이 여성들을 성매매 하였지만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군표는 이미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자발이나 비자발이나라는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 생존자들이 어떻게 짓밟히고, 유린당해왔는가를 따져본다면 명백한 강제동원된 것이다.

## 생활

군'위안부'들은 대개 아침부터 초저녁까지는 병사를, 초저녁부터 밤 7~8시까지는 하사관, 그리고 늦은 사건에는 장교를 상대하였다. 장교는 숙박할 수 있었다. 여러 부대가 같이 주둔한 경우에는 서로 요일을 달리해서 위안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군인 한 사람당 대개 30분이나 1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었다. 군'위안부'들은 하루에 평균 10명 내외에서 3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주말이면 훨씬 더 많았다. 또 위안소가 없는 지역에 파견되면 임시 막사에서 그 부대의 전 인원을 상대하기도 하였다.

위안부들은 일제가 패전하자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 더욱이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이들을 한

데 모아 죽이기도 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잠시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집단으로 귀국선을 타거나, 혼자 실로 술한 어려움을 헤치면서 고향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타국에서 그대로 머물러야 했던 경우도 많다.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더럽혀진 몸으로 돈도 한 푼 없이 돌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귀국 도중 연합군의 폭격으로 배가 파산되어 집단적으로 수장되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었다.

## **성의 상품화, 계급, 민족·인종차별 문제의 총체**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성을 상품화하여 파시즘과 군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낸, 강제 연행, 강간, 고문, 학살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잔악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끌려갔던 여성들 대부분은 집안이 어려운 빈농, 빈민의 딸들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덜란드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 관련자 처벌을 하는 등 아시아 피해 여성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성과 계급, 민족(인종)의 문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을 ‘범죄’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것은 다음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족의 치욕’이라는 가부장제 패러다임인데 이것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침해를 가부장제하에서 남성 간에 벌어지는 재산권 싸움으로 환원한다. 때문에 일종의 적의 남성들에 의한 재산 침탈과 같은 수치라는 생각, 민족의 치욕이라는 이유로 위안부에서 행해졌던 만행 사실에 대한 발언을 못하도록 작용하였다.

또 한 가지는 ‘순결’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다. 여성의 순결성을 강조하여 명백히 ‘범죄’에 의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진 여자,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전시 강간’이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데. 전쟁시 학살이 암묵적으로 면죄되는 것과 같이 ‘강간’을 비상시 남자의 참지 못하는 성욕 때문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 강간은 ‘적’ 남성에 대한 상징적인 모욕이며 자기 힘의 과시가 된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는 ‘전시 강간’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매춘’이라고 하며 역시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당시 자유 의사에 의한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취업 사기’에 의해 끌려간 것이다. 또한 금전 수수가 강간을 면죄시키지 못한다. 위안소는 군의 관리 하에 있었으며 그 실태는 감시하의 ‘강제 노동’이었다. ‘매춘’ 자체를 강제나 임의에 관계없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과 금전의 교환’이라는 시각의 오류인데, 실제로 성 산업으로서 ‘매매춘’은 파는 사람(업자나 경영자, 대개 남성)과 사는 사람(인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행위이며, 거기서 여성은 교환 주체.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객체=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중의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강간’ 그 자체의 범죄,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작용하였다.

## 1. 전쟁의 성별화 된 영향: 피해자 여성

성별(젠더, gender)와 전쟁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습적인 견해는 남성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여성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민족이나 사회집단을 대변하는 남성은 다른 집단의 남성과 싸우고, 여성은 이런 전투의 바깥에 있으면서, 남성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런 점에서 전쟁의 남성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여성학자나 실증적인 연구들은 전쟁이 여성 및 남성과 맺는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가설에 도전하고 있다. 전쟁은 여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전쟁 만들기는 여성의 참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군사적 혹은 안보와 관련된 결정에 어떤 발언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쟁이 여성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들은 여러 방식으로 전쟁에서 고통을 겪는다. 죽음, 성적 악용과 고문,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집과 공동체를 잃어버린다. 흔히 여성은 군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여성은 전쟁에서 적게 목숨을 잃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전쟁 제조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상자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폴 케네디(Paul Kenndy)와 잉고머 호칠러(Ingomar Hauchler)는 설득력 있게 전쟁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전쟁에서 죽은 자는 1억4천만 명인데, 이는 1500년 이래 전쟁으로 죽은 자의 2/3에 이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기술이 발전할수록 민간인 희생자는 증가하고 있고, 전면전(total war) 전략은 전쟁의 목표로서 전투요원과 민간인 사이의 구별을 중시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의 재난의 50%는 민간인이었으며, 1980년대는 그 비율이 80%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 이르면 그것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간인 피해자의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Turpin: 801)

### 1) 전쟁 피난민으로서의 여성

여성들은 전쟁에 의해 쉽게 뿌리 뽑혀진다. 전쟁은 총체적인 경험이다. 전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정체성을 파괴한다. 노동장소, 재산,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잃게 된다. 이 전쟁 피난민의 4/5는 여성이거나 어린 소녀인데, 이들은 추가적으로 피난과정에서 성폭력을 경험한다. 1992년 말까지 460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는데, 약 3600만 명이 여성과 소녀이다. 전쟁에서 죽이는 것이나 죽는 것도 성별화 되어있다. 여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하여 죽일 경우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남성이고, 포로로 잡히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것도 남성이기가 쉽다. 집단무덤에서 발견되는 시신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은 가족과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뒤에 남겨지기 때문이다. 피난민 여성들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돌보아야 하고, 음식을 찾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결국 여성은 확대가족 네트워크의 부양자가 되어야 하고, 의사 결정권은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 2)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 ㄱ. 전시강간

전쟁시에 여성은 적군에 의해 쉽게 강간의 대상이 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전시에 일어난 성폭력 중 가장 끔찍한 사건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에 의한 체계적인 강간이었다. 마찬가지로 르완다나 1981년의 방글라데시에서의 전시 강간도 잔혹한 사건의 하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강간 그 자체에 못지않게 강간을 받아 들이는 사회적 태도이다. 1995년 비인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NGO포럼에서 제네바헌장이 강간을 '명예에 반하는 범죄(a crime

against honor')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비판되었는데, 이는 강간이 인간에 가하는 고문 방식으로서보다는 적남성과 공동체의 명예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Yuval-Davis: 307) 강간당한 여성의 경우 전쟁의 성별화 된 영향력은 극대화된다. 강간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의 존중심을 잃게 되고 살아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지원도 상실하게 되어 버림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 ㄴ. 성매매

전시 매춘은 경제적으로 강요되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강제된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군부는 동남아시아에 10-20만 명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매춘을 강요하였다. 인로(Cynthia Enloe)가 지적하는 대로 매춘은 매춘여성과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기지 주변에 매춘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전체 제도의 문제이다. 즉 여기에는 남편과 애인, 술집 주인과 포주, 지역 보건담당 관리, 지역경찰, 나아가서는 지역 군대, 국군, 외국군 모두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부는 성병 방지를 위한 정기검진을 통해 매춘여성의 삶을 통제한다. 또한 2차대전 시기에 미군 기지와 연결되는 매춘업소에는 백인과 유색인종 남성이 드나드는 입구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매춘과 인종문제가 연루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군사기지가 세워지는 곳에서 군대는 거대한 자본의 유입을 제공하고, 지역 정부는 성을 사고자 하는 군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지니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을 끌어들인다. 필리핀에서도 미군이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던 어린 농촌소녀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이 여성들은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성매매의 세계로 내던져진다.

### 3) 전시 가정폭력

여성구타는 평화시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최근의 조사는 전시에 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별화 된 폭력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벨그라드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전시에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폭력이나 민족성이 서로 다른 부부사이에서 아내구타는 증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성들의 알콜 소비와 강간도 늘어났다.

그렇다면 왜 전시에 가정에서 여성구타와 강간이 증대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로, 전시에 다량의 무기가 사회로 흘러 들어오고, 이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최근의 범죄 연구나 안보연구는 무기의 존재 자체가 폭력 사용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둘째로, 군인이나 재향군인들이 그들의 전쟁터에서의 경험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좌절하고, 신경질적이고, 비관용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다. 셋째로, 국가가 만들어내는 선전이 갈등의 해결수단으로 폭력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타 민족이나 인종집단에 대한 증오감의 선전은 쉽게 폭력의 증대를 초래한다.

### 4) 전쟁, 환경파괴 그리고 여성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조 외에도 전쟁은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이는 식량 생산자이자 가족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은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여성들은 주된 식량 생산자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은 식량의 80%를 생산한다. 여성은 연료를 모으고, 물을 구하고,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나 전쟁이 경작을 방해하면, 여성의 과제 수행은 더욱 힘들어진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내전을 통해 경작지의 80%가 파괴되고 토지의 77%가 황폐화되었다.(Turpin: 805) 베트남에서 미군이 했던 것처럼 군대는 용단폭격을 자행하고, 이는 농민여성이 땀감을 모으는 작업, 농사를 짓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든다. 이에 못지않게 식수원의 감염도 여성에게는 큰 난관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 사망의 34.6%는 운반가능한 물 부족에서 오는 질병 때문이었다. 여성은 하루에 몇 시간을 걸어서 식수원을 구해야 하고, 전

쟁이 일어나면, 식수 확보에 소비하는 여성의 노력은 배가된다. 마찬가지로 걸프전쟁동안 이라크군이나 연합군은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다. 이라크는 기름을 바다로 퍼부었고, 미국은 화학과 핵 시설을 파괴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은 성별화 된 방식으로 전쟁의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 5) 여성에 끼치는 군사비의 영향

전쟁이 가져오는 파괴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에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무기구매를 위해 지출된다. 군사비는 세계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5%를 차지하고, 이는 2차대전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대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비의 3배이고, 주택비의 15배이다. 비커(Jeanne Vickers)는 군대의 병사 일인당 지급되는 비용은 취학 아동에 지급되는 것의 30배라고 말한다. 미국이 연구와 개발에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단지 1%가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되는데 비해, 64%가 군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군사비 지출이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위산업에 일하는 대다수의 여성은 저임의, 일관생산방식(assembly line)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노동은 미국의 경우 주로 유색 여성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전쟁과 그 휴유증을 논할 때, 성별화 된 그리고 계급에 기초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기약할 필요가 있다. 남녀사이에는 전쟁의 경험만이 다양한 것은 아니다. 여성성의 군사주의적인 이미지-여성-은 집에 남아 좋은 아내나 어머니가 되거나 혹은 여성들은 자원해서 방위산업에 자원하는 것-은 남성성의 군사주의적 이미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은 항상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그래서 전투에 참여한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가 화덕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자신들의 귀환을 기다린다는 사실'에 의해 위로받거나 고무되어진다.

## 2. 군인으로서의 여성

여성은 평화주의자 혹은 전쟁 반대자로 정형화되지만, 여성들 역시도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군대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려고 시도한다. 최근의 여러 갈등과정, 예를 들면 걸프전쟁, 르완다에서의 대량학살, 보스니아의 인종청소 등에도 여성은 참여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방위산업이나 무기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여성은 군대 내에서 하위 직종을 맡으면서, 군대 내의 '여성적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은 항상 군대생활의 통합된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여성이 군대생활에 진입하는 것은 항상 편견과 남성적 공포를 낳는다. 군에 종사하는 여성의 압도적인 다수는 민간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성별분업에 따른다. 예를 들면 비서직, 간호원, 교사 등의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소수의 여성만이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전투와 인명 살상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군대 내에서 여성은 이등군인에 불과하다. 여성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군에 종사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미국 군대 내에서 여성은 지상전 뿐 아니라, 공군과 해군 전투에서 배제되고 있다. 군대 내에서 오히려 성차는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서 군대 내에서 여성 군인은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남성군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남성들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 여성에게도 징병제가 적용되는 이스라엘에서 여성부대에는 'khen'이라는 접두어가 붙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매력'이라는 뜻을 지녔다. khen 구성원의 주된 임무는 부대의 도덕성을 정립하고, 부대의 병사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 군대 내에서 여성만의 분리된 부대편성이 폐지된 이후 강간과 성희롱

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바로 여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혹은 여성군인에 대한 남성군인들의 불안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적 역할은 계급과 인종에 기초하고 있다. 인로는 그의 책 <인종적인 군인들(Ethnic Soldiers)>에서 아차대전 중의 전투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장 높은 비율로 미국군의 전투에 배치된 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전투에서 배제되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 징병제는 특정한 체제 혹은 정부가 다수의 광범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이지만, 주목할 점은 군대への 참여와 시민권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일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서구, 특히 미국에서 여성의 군 입대 비율과 수준이 높아진 것은 병역의무가 더 이상 시민권의 기표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Turpin: 309)

여성의 군대への 참여는 여성운동이나 여성학 내에서 많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군 위안부 문제에 골몰하면서, 일본의 여성사가들은 여성대중이 전쟁을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이는 여성이 단지 전쟁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였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의 국민화' 프로젝트는 당시 일본의 페미니스트에게 왜곡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런 맥락에서 전쟁은 그들에게 수용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다.(우에노 치즈코: 56-58) 물론 이런 문제제기는 여성을 더 이상 역사의 피해자로 제한하기보다는 여성이 역사의 주체임을 밝히려는 여성사가의 노력에 못지않게, 전후 독일의 과거청산과정에서 여성에 대해서도 전쟁의 책임을 제기하는 독일 여성사가들의 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성의 군사적 직업에의 참여나 그를 둘러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는 군대への 참여를 시민권 개념과 연결한다. 시민권은 어느 정도는 한 사람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능력에 달린 것이므로 여성이 시민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군대への 참여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군에서의 봉사는 여성의 정치적인 고위직으로의 진출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여성들은 군대는 본질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인 사회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이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여성 다수가 군대에 들어가면 이를 통해 군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군대가 여성을 변화시킬 것'이라 응수하며, 군사주의에 대한 여성의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로 존재하는 군대와 군사주의 문제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괴롭힌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거부해야 하지만, 독일 녹색당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처럼, 현실 정치에서 군대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럴 경우 여성운동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하는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는다.

### 3. 저항주체로서의 여성

저항주체로서의 여성을 제기할 경우, 우리에게 몇 가지 쟁점이 떠오른다. 우선 일반적으로 여성 근본적으로 평화주의적이라는 여성주의적 입장이 있다. 여성의 평화지향성은 여성이 근본적으로 친밀성에 기초하여 돌봄이나 보살핌을 지향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차이에 기초한 여성성의 발견은 과거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던 담론을 넘어서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혹은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성보다 더 평화지향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생활상의 실천이나 노동방식이 생명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성은 더 평화운동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정현백: 109-10)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여성에게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는 담론은 전쟁



과 같은 상황에서 전쟁에 협조하는 보수적인 논리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지지되어온 성별분업의 논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김귀옥: 193-4) 그러나 이런 본질론적인 논의는 우리가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이 더 평화지향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조사도 여의치 않다. 한 두 번의 현장조사나 설문지 조사로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역사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또한 남녀 모두는 그들이 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는가 이다.

9. 11일 테러와 아프간전쟁 개시이후,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평화운동에 참여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평화어머니회>, <전쟁반대여성연대> 등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들이 주로 하였던 사업은 테러와 전쟁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두 번에 걸친 거리시위, 인터넷 신문을 통한 평화쪽지 날리기(현재 약 4500명 참가), 심포지움,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등을 주도하였다. 또한 여연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국제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화운동의 측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그간 남성들이 통일운동에 보여 온 열기를 고려하자면, 남성들의 평화운동에 관한 관심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여성평화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딜레마는 여성들이 훨씬 앞서서 평화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대단히 낮다는 점이다.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평화운동을 어떻게 대중적인 정서와 접맥하면서, 대중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성들이 보다 진지하게 토론해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런던, 베를린, 할레 등의 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참여한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불과 수 십명의 참여가 고작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아프간 전쟁 지원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성명서와 요구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보다 진전된 논의로 발전하거나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간 진행된 통일 중심의 통일논의를 어떻게 평화 운동적 관점과 결합된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한반도의 현실은 평화 없는 통일, 통일 없는 평화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저항주체로서 여성이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평화를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저항에서 정형화된 상징들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영국의 그린햄(Greenham commom) 철거운동에서는 여성들은 핵 시설의 철조망에 기저귀를 걸었고, 시위를 하는 자신들의 목에는 어린이의 사진을 걸었다. 미국에서 핵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시위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파업을 선포하였다. 시위의 한 형태로 의회나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는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복장을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있는 남성들에게 어머니나 누이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지키는 또 하나의 어머니들(Another Mother for Peace)’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어머니날 기념 카드를 보내는 방법을 통해 평화를 호소하였다. 혹은 ‘평화어머니 현장’도 20개국의 언어로 발표되었다. 대체로 ‘수동성’과 연계되는 이런 여성적인 상징물들은 여성들을 정치적 저항운동으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칫하면 이가 성별분업이나 여성성의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평화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어찌면 이런 방법론은 대중화를 위해 불가피할 지도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여성성이 본질적으로 더 평화적이나’는 논의로 우리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고, 여성들이 왜 평화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위의 여성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토론이 필요하다.

## 토지문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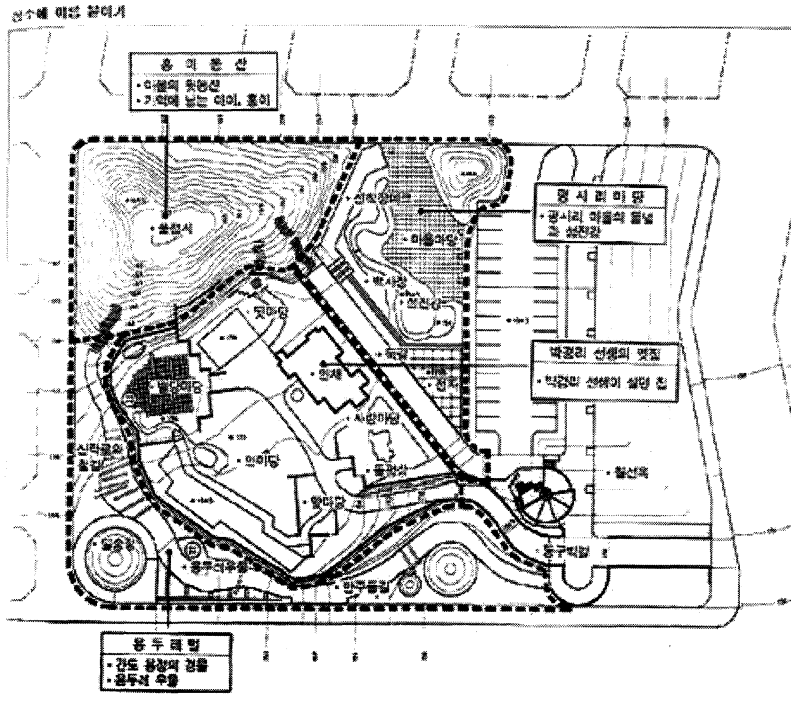
토지문학공원은 원주시 단관택지개발지구(구 단구동 742-9번지일대)에 위치한 공원으로, 박경리 선생의 토지의 산실인 옛집과 4개의 테마(평사리마당, 홍이동산, 옛집, 용두레벌)로 이루어졌으며, 넓이 10,489m<sup>2</sup>(3,173평)으로, 도보로 3천여 걸음이며, 관람소요시간은 30분정도이며, 현존하는 문인의 최초의 기념, 테마형 문학공원이다.

1989년 도시팽창으로 인한 택지개발의 필요에 의한 [원주단관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옛집이 헐릴 위기에서 문인들과 많은 지역민의 보존요구와 토개공의 인식전환으로 보존되었다. 또한 보상비와 토개공의 지원으로 매지리 회촌 마을에 토지문화관과 박경리 선생의 새로운 집이 마련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하다.

선생은 80년 원주로 이사하여 토지의 4,5부를 완결하셨고, 텃밭을 경작하시며, 생명에 대한 치열함을 손수 보여주신 곳이기도 하다.

공원전체의 동선은 토지의 여정을 공원의 동선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평사리에서 시작하여 간도(용정)를 거쳐 다시 평사리로 귀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원의 출발점은 현재의 시공간과 소설의 시공간이 만나는 옛집의 대문에서 시작된다.

- 도입공간: 골목길은 돌담으로 처리되어 동구밭의 의미 전달
- 제1공간: [평사리마을]은 섬진강, 백사장, 뚝길이 배치.
- 제2공간: [용이동산]은 평사리 마을의 뒷동산으로 정자바위 배치.
- 제3공간: [용두레벌]은 신작로와 철길, 일송정, 용두레우물, 만주들길, 돌무덤과 흙무덤으로 이미 지화. 주 공간인 옛집은 안채와 안마당, 사랑마당, 별당마당과 텃밭으로 배치.



## 박경리 선생의 삶과 토지의 의미

### 작가 소개

박경리(朴景利 1926- ) 소설가. 경남 충무 출생. 1945년 진주 고등 여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했으나, 한국전쟁 중 부군이 남북된 후 창작 활동에 전념하였다.

1955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현대문학>에 단편 “계산”과 “흑흑백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장한 이래 “불신 시대”, “암흑 시대”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1957년 부정과 악에 강렬한 고발 의식을 보여 준 “불신 시대”를 발표하여 제3회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여류 작가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대체로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거나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전쟁 미망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아들 작품에서는 전쟁 미망인들의 삶, 또는 그들의 눈을 통해 사회 현실의 훼손된 국면들을 예리하게 파헤쳤다.

1959년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독한 여인의 심적 방황을 그린 장편 소설 “표류도”를 발표하여 제3회 내성 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편 소설의 집필에 주력하였다. 이후 “내 마음은 호수”, “은하”, “푸른 은하” 등의 신문 연재 소설을 발표하는 한편, 1962년에는 전작 장편 “김약국의 딸들”을 발표하였다. “김약국의 딸들”은 이전의 자전적 사건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였고, 공간적 배경도 전쟁터가 아닌 통영으로 바뀌었으며, 제재와 기법 면에서 다양한 변모를 보인 전환기적 작품이다. 1964년에는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생활인으로서의 시각과 전쟁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의 시각을 통해 예리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담은 전작 장편 “시장과 전장”을 간행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이듬해에 제2회 한국 여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가을에 온 여인”, “늑지대”, “타인들”, “환상의 시기” 등을 연재하였다.

1969년 이후부터는 대하 소설 “토지”에 몰두하였다. 하동의 대지주 최 참판네 일가를 중심으로 한말에서부터 식민지 시대를 거쳐 조국 광복에 이르는 민족사의 변천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광대한 스케일과 한국 근대사의 전개에 관한 작가의 독특한 시각은 우리 소설사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에는 “토지” 제1부로 제7회 월탄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줄거리

<토지>는 하동 평사리의 대지주 최씨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문을 연다. 최씨 집안의 안주인인 윤씨부인(최치수의 모친)은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후에 동학 접주가 되어 처형당하는 김개주에게 겁탈당해 김환(일명 구천이)을 잉태한다. 그 후 김환은 최씨 가문으로 잠입하여 하인이 되지만, 최치수의 아내인 별당아씨와 사랑에 빠져 둘은 지리산으로 도망친다. 최씨 가문의 재산은 탐낸 귀녀와 몰락 양반 김평산의 음모로 최치수는 교살당하고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은 윤씨부인에게 발각되어 사형당한다. 최씨 집안의 외가 쪽 먼 친척인 조준구는 윤씨부인이 마을을 휩쓴 호열자(콜레라)로 죽자 최씨 집안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 그는 한편으로 최씨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인 최치수의 딸 서희를 몰아내고 마을 사람들을 분열시키면서 일본인들의 힘을 빌려 모든 재산을 손아귀에 넣게 된다. 여기에 더해 서희와 자신의 아들 병수를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자 서희는 충직한 하인 김길상 등과 함께 용정으로 탈출한다. 서희는 용정에서 윤씨부인이

남긴 금은괴를 자본으로 장사에 성공하여 거부가 되고 하인이었던 길상과 혼인한다. 여기까지가 “토지” 1.2부의 개괄적인 내용인데, 국권 상실, 봉건 가부장 체제와 신분 질서의 붕괴, 농업 경제로부터 화폐 경제로의 변환 등 1900년대와 191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가 소설의 밑그림으로 담겨 있다.

3.4부는 1.2부와 연속선상에 놓이면서도 시대, 배경, 인물의 변화와 변천에 따라 이야기의 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4부의 시간적 배경은 2,30년대인데, 이 시기 한국 사회의 격변이 소설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음이 확인되고 일제의 총독 정치가 가혹해지기 시작한 1920년대 식민지 상황의 암울한 분위기가 무겁게 소설을 누르고 있다.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은 굳건히 발붙이고 살 정착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소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소설의 무대가 다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부에서는 평사리, 2부에서는 용정으로 거의 국한되어 있다시피 한 소설의 무대가 3,4부에 와서는 서울, 부산, 진주, 평사리, 그리고 국외로는 간도 일대와 일본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민족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독립 운동의 여러 노선이 제시되며, 지식인들의 사상적 경향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시도된다. 이런 가운데 1,2부의 주역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 용이와 그의 아내 임이네는 병으로 죽고, 기생으로 전락한 끝에 이상현의 씨를 낳고 아편 중독자가 되고 만 기화(봉순)는 끝내 서희의 비호와 정석의 애끓는 연정을 뿌리치고 투신 자살한다. 동학 잔당이 세력을 규합하여 독립 운동을 벌이려던 김환은 고문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용정 공노인의 부인과 조준구의 악착 같은 부인 홍씨도 세상을 떠난다. 이들의 죽음과 함께 “토지”에서는 이들의 후손들이 점차 주역의 자리를 차지한다. 서희의 두 아들 윤국과 환국, 용이의 아들 홍이, 조준구의 아들 째추 조병수 등이 소설의 전면으로 나온다. 이와 함께 3,4부에 오면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인텔리 계층으로 작가는 이들을 통해 희망 없는 식민지 상황의 암울함을 드러낸다. 임역관의 딸 명빈과 명희를 비롯해 귀족층의 조용하, 급진적 사회주의 사상가 서의돈, 극작가 권오송, 성악가 홍성숙, 조선에 대해 동정적인 일본인 오가다 지로, 유인실, 강선해, 황태수 등과 진주 쪽의 박효영, 허정윤 등이 그러하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는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해방의 감격까지를 다루고 있는 5부는 “토지” 대단원의 장이다. 송관수의 죽음, 길상을 중심으로 한 독립 운동 단체의 해체, 길상의 관음탱화 완성, 오가다와 유인실의 해후, 태평양 전쟁의 발발, 예비 검속에 의한 길상의 구속, 양현·영광·윤국의 어긋난 사랑 등이 이어지면서 대하소설 “토지”는 거대한 마침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토지'의 상징성 :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는 농경 사회에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외부 세계의 대립 속에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의 지위와 역할

한 금 윤(연세대 강사,여/성이론 편집위원)

## 1.

현재 한국 문단은 여성 작가들이 왕성한 창작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은 1980년대보다 1990년대에 더욱 목소리를 내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은희경, 전경린, 공지영, 공선옥, 신경숙, 배수아, 조정란, 김혜경, 함정임 등처럼 1990년대에 등장하여 활동을 시작한 여성 작가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활동했던 박완서, 양귀자, 이경자, 윤정모 등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1990년대에는 갑자기 여성 작가가 문단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 작가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관심의 증폭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 흐름에 기인한다. 1980년대 민족·민주·노동·계급이라는 거대 담론에 의해 창작되었던 문학이 1990년대 들어 힘을 잃게 되면서 개인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문학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작가의 양적인 증가와 다르게 이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여성 작가들이 제기하는 삶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드러내는 형상화 정도이다. 대체로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문제 의식은 개인의 일상사에 있다. 가족이라는 제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한다. 성역할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부장제에 희생되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불륜을 통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질문이라는가, 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성차별 등 남녀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도 억압받는 상황에 대해 폭로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여성 작가의 문학적인 경향에 대해 비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여성 작가들의 문제의식이 아주 사소한 것에 있으며, 또한 감상적인 대응이나 울분을 폭발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민족·통일·노동·환경이라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과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시선은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분위기 덕분에 주목받는 일부 여성 작가들이 상을 타면서 여성 작가나 여성 문학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가진 작가들이 상을 받고 주목을 받다보니 요즘은 여성 문학의 시대라고 우려 섞인 냉소적인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 여성문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가, 진정한 여성 문학은 있는가라는 식의 허무적인 질문들이 오고가는 것이다.

이에 반해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남성연구자들의 여성 작가에 대한 시선과 다른 차원에서 여성 작가들을 평가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며, 남성과 다른 사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의 경험이란 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데,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첨예하게 여성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가족이라는 제도라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여성의 성역할에 따른 억압의 기제나, 가부장제에 따른 기존의 윤리와 도덕이 지니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이러한 경험을 한 여성 작가들에게는 여성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간절했다. 그리하여 여성의 억압을 드러내는 방식보다 억압의 내용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작가의 작품이 대체로 80년대 거대 담론을 담아낸 것과 대조적으로 문학의 소재나 제재가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로 이루어지면서, 문단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와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상호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여성작가들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개화기 이래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의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한다.

## 2.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관심도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학이 형성되어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기 까지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은 심하였다. 그 편견은 주로 남성 연구자 특히 남근주의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성에 대한 남근적 비평가들에 의해 여성 작가의 작품 세계는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였다.

한국 문단에서 여성 작가들은 개화기 이후 신교육을 받은 여성층에서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활동한 김일엽·나혜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기 여성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었던 작품들은 문학적 수준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로서의 희소 가치에 의해 저널리즘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여성작가는 보통 ‘여류작가’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여류작가’라는 명칭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성적 차이를 인식하게 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작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는 명칭이었다. 그들은 지식인 남성들과의 자유연애로 더욱 유명해졌는데 각 신문과 잡지에서 이른바 연애 스캔들을 게재함으로써 “작품 없는 작가생활”로 여성 작가가 취급되었다. 즉 그들에게는 어떤 가치 있는 작품을 썼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의 행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여류작가’의 등장에 대하여 일제하 여성비평가였던 임순득은 여성작가들의 지위를 “저널리즘의 일각에 작문, 수필, 기타 잡문 등속인 만치 계절의 화초적 존재”라고 지적하였다. ‘여류작가’라는 말에는 저널리즘의 상업주의적 의도와 함께 여성작가에 대한 작품 외적 찬사, 작품에 대한 평가절하, 혹은 무관심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다. ‘여류작가’들의 작품은 대체 모성애를 강조했거나 여성적인 섬세한 인식과 묘사, 여성적 욕망 등에 모아졌고, 이러한 특징을 ‘여성성’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이후의 여성작가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여성작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찬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되었으며, 작가로서의 문학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을 받지 못하였다.

1930년대는 박화성·강경애·최정희·이선화·백신애 등 여성작가들이 대거 활동한 시기이다. 이전 시대와 다르게 1930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 경향이 다양화되고 작품 수준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류’라는 편견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1930년대에는 편협한 남근적 비평이 횡행한 시기였다. 박화성은 빈궁을 소재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여 사상성을 띤 작가였고, 강경애는 1930년대의 현실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고 간도 문단을 주도했던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30년대 대표적인 비평가의 한 사람인 김문집은 박화성을 일컬어 ‘여성성 소실 혹은 여성성 기피’라는 표현으로 규정하였다. 그 당시 중요한 비평가였던 안회남은 김문집보다 극심한 남근적 편견으로 박화성에 대해 비판하였다. ‘박화성씨는 여성멸시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박화성의 작품이 ‘선이 굵고 호흡이 역세고 스케일이 커서 남성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안회남은 박화성을 여성모멸의 작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초기 여성작가들은 각자 나름대로 진지한 문제제기로 작품을 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만하는 가십거리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여성적이지 않은 이상한 작가로 취급받았다. 그러면서 1930년대 남성비평가들은 여성들의 예술 활동이 부진한 이유를 사회적으로 구명하지 않고 여성들의 창조력 결여로 설명하면서 여성작가들을 왜곡된 생물학적인 조건들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성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여성해방의 시각을 제시하며 여성작가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대체로 1970년대에 와서이다. 1970년대 각 대학에서 여성학이 생기고, 여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성학 분야와 다르게 문학계에서 여성작가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와서이다. 대체로 여성연구가에 의해 남근중심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연구가 진

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여성연구가로는 서정자, 정영자, 김정자로 그들은 잊혀진 여성작가들을 발굴하고, 여성적인 입장에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또하나의 문화>, <여성>, <여성운동과 문학>, <여성과 사회>라는 여성주의적 저널이 발간되면서 여성작가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작가를 연구하면서 여성작가의 역할이 제대로 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지위 역시 남성 작가들의 연애대상이거나 일반 사람들의 화초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3.

우리나라 근대 여성작가의 시발로 보이는 사람은 김명순이다. 김명순은 1917년 “청춘”지의 현상모집 소설에 당선되어 소설가로 데뷔했다.

데뷔작품의 「의심의 소녀」는 전세대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남존여비의 현실에 과감하게 도전한 작품이다. 1917년에는 이광수가 "무정"을 쓴 해이다. 이광수의 "무정"은 신교육·자유연애 사상 고취 등 새로운 이념으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한 작품으로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김명순 역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유연애를 부르짖으며 여성의 억압을 고발했으나, 이러한 그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1910년대가 이광수·최남선의 이인 문단시대라고 명명되듯, 김명순의 목소리는 이광수와 최남선의 목소리에 묻혀 있었다. 그 당시 신사상·신교육이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보인 김명순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근대적 개인이나 주체는 남성에게 의해서만 형성될 수 없으며, 여성 또한 새로운 시대에 따라 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전근대적인 억압과 근대적인 배제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상처받고 소외되어 가는가를 김명순은 드러내었다. 그녀는 사회적 고찰과 함께 여성문제를 짚어냈던 것이다.

1920년대에는 김일엽·나혜석이 김명순의 신여성적인 여성 문제에 대한 탐구를 계승하며 여성문제를 노출시켰다. 1920년대는 남성작가 문단을 중심으로 일정한 문학적 경향을 형성하며 집단적인 힘을 행사한 시기였다. 김동인·염상섭의 논쟁, 카프집단의 논쟁 등으로 한국 문학에서는 식민지 현실에서 문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쟁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그런데 김일엽과 나혜석은 이러한 문단적 흐름과 상관없이 여성의 고통을 그려나갔다. 김일엽은 「어느 소녀의 사(死)」에서 전통적인 결혼관에 반기를 들고 자살로써 자유결혼을 중시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나혜석은 “원한”에서 자신의 신체를 망치게 한 집안에서 뛰쳐나와 자각적인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삶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자기 찾기 몸무림을 1920년대 남성중심의 문단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여성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나 계급 문제보다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도 여성작가의 문제의식이 소홀하게 취급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일엽·나혜석은 끼 있는 신여성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남녀 평등·자유연애가 전통적인 제도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받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여성작가들은 끊임없이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지니는 여성 억압을 고발하는데 주력을 다하였다.

1930년대는 여성작가의 활동이 다양한 방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박화성·강경애·백신애·이선화·김말봉 등 많은 여성 작가들이 사회 문제와 여성 문제를 연관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 작가들은 대체로 빈곤의 문제와 여성 문제를 연관지어 소설화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적 상황에서 빚어진 절대적인 빈곤이 민족적 당면 과제임을 절감하였고, 또한 빈곤의 생활 한 가운데 노출된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여성문제의 핵심으로 생각하였다. 빈곤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인식한 남성 작가들에 비하여 박화성·강경애는 빈곤·계급·여성이라는 세 개항을 연결지어 시대 문제를 보여주었다. 박화성은 식민지 사회 현실이 가져다 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주제로 하면서도 전통적인 여성의 소극성을 배격하고 현실의 당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주의적인 인물을 창조하였다. 강경애는 ‘빈궁’이 여성

의 삶을 황폐화하므로, 경제적 구조의 변화 없이는 여성 해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강경애 작품에서도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여성인물이 창조되었다. 이처럼 1930년대 여성작가들은 계급과 민족의 문제만 바라보는 남성 작가들의 제한적인 시선보다 한 차원 높게 근대 사회의 문제를 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 여성 작가들이 여성의 억압을 막연하게 절규하는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인 문제와 계급적인 문제와 여성의 문제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여성 해방의 시각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진보적이고 전체적인 여성 해방의 시각을 가진 여성 작가들은 해방기에 혼란스러운 이념의 장에서 소외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50년대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는 여성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강신재·한무숙·한말숙·박경리·손장순·손소희·구혜영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였다. 하나는 전쟁으로 남성이 부재한 시기에 여성들이 한 가족을 유지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룬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근대적인 체험을 한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윤리를 거부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6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1950년대 전쟁의 폭력성과 인간 존재의 실존 문제를 다룬 남성 작가들의 작품과 다른 여성작가들은 개인의 사소한 심리 변화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문단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 작가들은 남성 작가들의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통하여 전쟁이라는 재앙을 관념적으로 그린 것에 반해, 구체적인 일상 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인간의 문제, 즉 여성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나갔다는 면에서 식민지 시대 리얼리즘을 계승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는 박경리의 “토지”가 창작되기 시작하면서 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이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산업화 시대의 민중들의 고통을 단편적으로 그려내는 데 그치는 남성작가들과 다르게 박경리는 우리 근대사를 여성을 중심으로 긴 호흡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자 문단에서는 박경리의 “토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여성작가들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작가를 ‘여류작가’로 바라보는 남근적 시선을 거두고 여성 작가들이 근대 사회의 허위와 기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이 문단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박경리만이 아니라 박완서는 민중들의 고통을 거칠고 투박하게 고발한 남성작가들과 다르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인간들의 문제를 섬세하고 날카롭게 드러내어, 사실주의적 소설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박완서는 1980년대에 들어 “살아 있는 날의 시작” 등 여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근대 사회의 윤리적 허구성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민족문학, 민중문학, 노동해방문학 등 거대 담론에 의한 문학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을 때에도 박완서는 중년 여성의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으로 여성들의 피해 의식을 증언하고 여성들의 자존의 삶을 확립하기 위한 작품을 썼다. 박완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노동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면서 소홀하게 된 여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켰으며, 특히 여성의 문제를 현 사회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을 시켜 드러내었다.

이외에도 1980년대는 윤정모, 이경자 등에 의해 여성문제가 이전 소설과 다르게 새롭게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윤정모는 “고삐”를 통해서 윤락여성의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문제가 여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식민지 형태의 국가의 자율성 결핍의 문제이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문제임을 드러내었다. 윤정모의 “고삐”를 통해서 1970년대 최인호 등 남성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호스텔스 문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남성 작가에게 호스텔스란 산업화 시대가 낳은 소외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처받은 여성들의 문제일 뿐이다. 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상처를 받고 남성들에 의해 치유받기를 원한다. 최인호 등에 의한 남성 작가들의 호스텔스 문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의욕을 상실한 여성에 대한 안쓰러운 호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윤정모는 왜 여성들이 윤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성윤리의식이 결핍된 여성들에 두지 않았고 사회적, 민족적 상황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즉, 강대국에 예속된



국가의 자율적인 통치권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1980년대 한국적인 상황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에 효과적이었으며, 여성문제 또한 민족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임을 보여주는 데 한층 발전적이었다. 이경자는 “절반의 실패”에서 다양한 여성 문제를 보여 주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외도하는 남편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 윤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남성중심적인가를 드러내었으며, 빈민여성의 문제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허상과 기만을 드러내었다. 1980년대 여성주의 작가들은 남성작가들이 바라보지 못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노출시키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에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가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 여성작가들이 일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문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인숙·공지영·신경숙·전경린·함정임·하성란·은희경 등 많은 여성작가들이 온갖 문학상을 휩쓸면서 문학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은 여성작가의 시대가 된 듯하다. 이제 여성작가를 표면적으로 여류작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작가의 작품의 질과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1990년대 여성 작가들에 의해 현대 사회를 바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년대는 여성작가들의 문제의식과 감수성이 현대사회 문제를 바라보기에 적합한 듯하다. 1980년대식 거대 담론이 물러가고 포스트 모던한 문제제기가 힘을 발휘하면서 인간에 대한 고찰이나 성찰들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1990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여성작가들의 세밀한 시선과 작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섬세함, 일상적인 개인들의 욕망과 고통을 풀어내는 힘 등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문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여성작가들은 새로운 문학적 흐름에 조성된 평가를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90년대 여성작가들은 여성주의적 작가라기 보다는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세상을 들여다 보는 여성적 작가이다. 작고 나약한 여성적 세계에서 부딪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통하여 세기말적이고 이념이 부재한 인간들의 상실감을 잘 드러내기는 하지만, 여성문제를 본격적인 창작 과제로 설정한 여성주의적 작가는 드물다. 1990년대 여성작가들이 화려한 데뷔로 선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하여 그들의 시선은 극히 개인적인 내밀한 욕망에 간혀, 거시적인 여성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4.

지금까지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성 작가들이 문학에서 한 역할이나 지위를 사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 문학 여성 작가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가 지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데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근대적 남성적 가치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여성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과 여성적 가치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고찰을 넘어서 21세기 주도하는 여성 작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이 일정한 세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약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항목에서는 여성주의적 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대한 합의를 통하여 한국 여성 작가들의 역할들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을 언어를 매개로하여 형상화한 것이라고 흔히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에 대한 정의가 여성주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우선 ‘인간의 삶’이라는 항목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인간이라는 말에 성을 개입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면 인간이란 중성인가? 우리는 문학에서 인간을 왜 보편적인 존재자로 생각했을까? 실제로 살아가는 개개인은 ‘너는 여자니까 이래서는 안 돼!’ 또는 ‘너는 남자니까 이래야 돼!’라는 식의 길들여지는 과정을 겪는다. 즉 한 개인은 성정체성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혼용되고 구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인 문학에 대해 우리는 왜 성을 개입

시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또한 문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때 그 언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사용하는 사람의 성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언어에는 성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성적 특성이란 부드럽고 순종적인 언어는 여성적인 것, 강하고 진취적인 언어는 남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언어상의 구별이 누구에게 좋은 것이고, 어떤 성을 위해 정당화되는데 사용되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 표현되는 언어를 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일까?

문학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누가 하느냐이다. 물론 여성들이다. 일반 여성들이라기 보다는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들이 일반적인 문학의 범주에 대해 성을 개입시켜,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반쪽의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폭로하는 작업을 하였다. 결국 이제는 문학이 아니라 여성문학을 원한다. 여성문학이라고 할 경우는 작품을 생산하는 주체도 여성이며, 작품 속의 인간의 삶의 이야기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이며, 이를 평가하고 이야기라는 것도 여성 연구자거나 평론가들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문학을 이렇게 정의할 경우 여성이 쓴 작품은 모두 여성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존의 남성 연구자들이 여성 작가를 여류 작가라고 규정한 것과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하는 모든 문학을 여성문학이라고 규정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여성문학이라고 할 경우 반의어는 남성문학이다. 이러한 범주는 생물학적 성구별을 넘어서지 못한다. 문학에 성을 개입시켜 생각해보자 하는 운동은 생물학적 성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의 문학이 남성적인 가치나 근대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가치평화했던 가치들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현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성해 보고자 하는 문학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용어의 정확함을 기해야 한다. 여성문학이 아니라 ‘여성주의 문학’을 꿈꾼다.

여성주의 문학이란 억압되고 차별화된 여성들을 다시 여성들의 눈으로 복원시키고 여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겪는 이야기를 하는 문학이다. 여성들의 삶의 공간은 남성의 공간과 다른데, 이러한 다른 공간에서 겪는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여성의 가치가 실어있는 여성의 언어를 통하여 여성주의 문학을 창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작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재 한국 문단은 여성주의 문학이 조성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아니다. 1980년대 거대담론이 물러가고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던 남성 연구자들은 여성작가들의 문제의식과 형상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여성의 문제적인 삶으로 여성작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적인 삶으로 여성작가의 ‘작품’을 바라본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 분위기 덕분에 여성작가들은 주목받고 상을 타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로 부각된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가진 작가들이 상을 받고 주목을 받다보니 여성문학의 시대라느니, 여성문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든가, 진정한 여성문학은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오고가는 것이다.

결국 여성주의 문학은 억압받는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드러내고, 여성이 해방될 때 온전한 세계가 가능하리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는 문학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여성주의 문학의 방향이 여성의 문제를 폭로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근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치로서 여성주의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성 작가들은 여성주의적 시선을 확보하여 여성주의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여성주의 문학은 억압받는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이며, 그리하여 여성이 해방될 때 비로서 온전한 세계가 가능하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는 문학이다. 아

직까지 한국에서 여성주의 문학의 방향이 여성의 문제를 폭로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근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치로서 여성주의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여성 작가들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창작하며 새로운 세기에 더 나은 사회를 조성하는데 활동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 작가들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여성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여성학 강좌 (1999. 11. 3)

강연자료2>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강사

; 최금란

(KATR - 한국미술치료학회 공인 미술치료사), 교육학 박사과정, 국립강릉대학교, 경동대학교 외래교수,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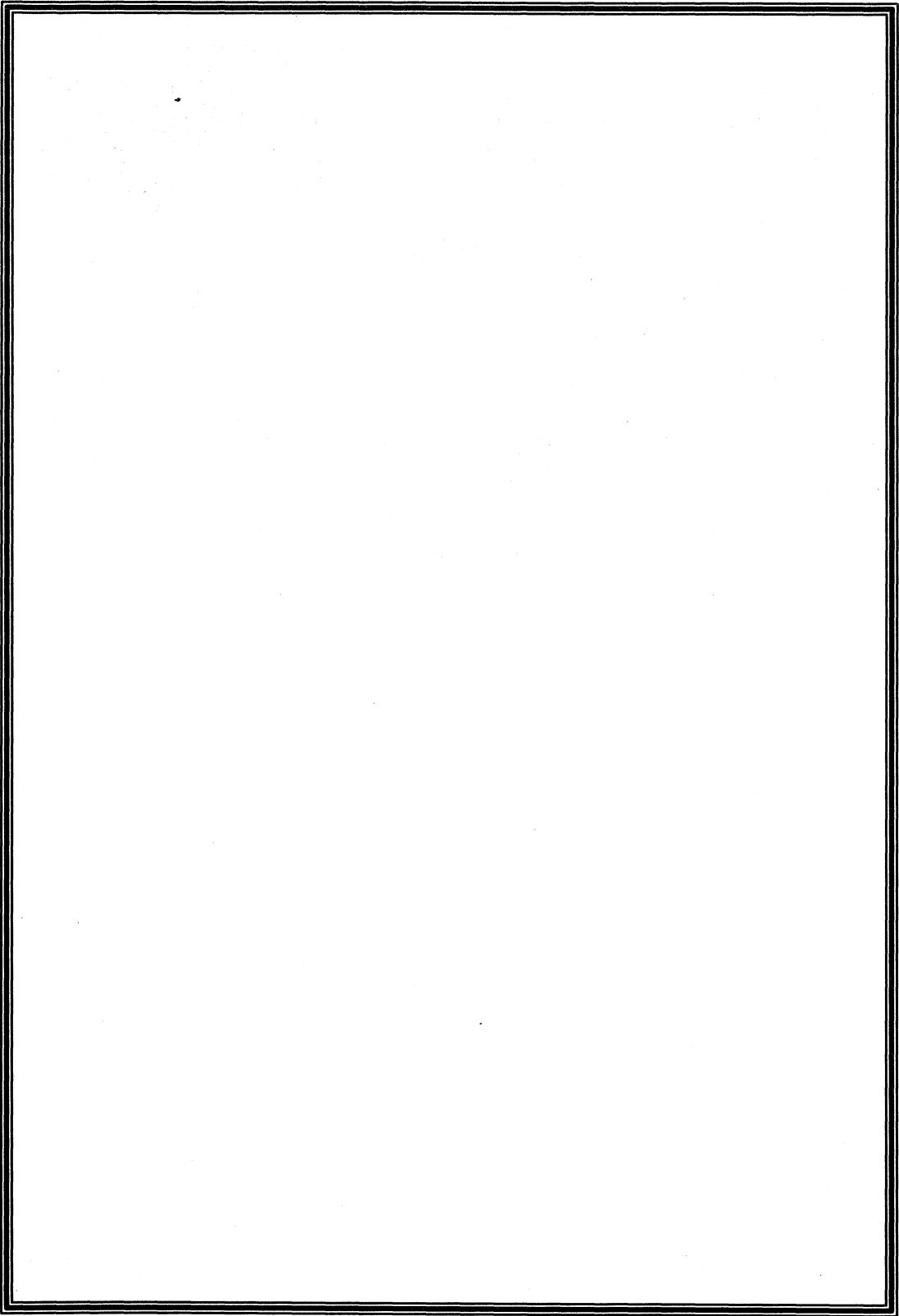
주 제	활 동 내 용	기 대 효 과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자기와 관계가 많은 3사람)에 대한 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보기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에 대해 얼마나 다른지 비교, 인식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해하기(자아탐색)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각 조별로(6명) 팀이 되어 주제를 정하고 그리기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적인 세상 만들기, 집단원간의 결속력 강화.

- 집단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 프로그램1 진행, 발표
- 프로그램2 진행, 발표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평가시간

7월 11일 상처, 꺼안음, 희망

추억을 남기고, 믿음을 쓰고.





7월 12일

한여름의 기억, 여기 다시 포이다.



시간	일정
6	기상, 세면
7	7:00- 요가(조선대) 7:30- 문학작품을 통하여 본 허난설헌: 흥익대
8	8:00- 식사 8:30- 허난설헌 생가 방문
9	9:00- 내 안의 평온함을 충전하는 2인 1조 산책
10	9:30- 허난설헌을 말하다
11	10:30- 허난설헌 백일장, 작품 설명
12	초당 두부 식사
1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2	
3	
4	4:30- 강릉대로 이동, 식사
5	5:30분- 나의 성애사
6	
7	
8	7:30- 서울로 출발
9	서울 도착
10	
11	
12	<어울림 마당>
1	
2	

## 허난설현(許蘭雪軒 1563-1589)의 작품과 삶

본명은 초희(楚姬), 호는 '난설현'

그녀는 세 가지의 한을 입버릇처럼 말했었다고 한다. 하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 다른 하나는 조선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

짧은 생애 커다란 아픔앓이만을 하다가 젊디 젊은 나이에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강릉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녀. 아버지는 경상 감사를 지냈던 동인의 영수이고(화담 서경덕의 제자), 큰 오빠 허성은 이조, 병조 판서를, 둘째 오빠 허봉 역시 홍문관 전한을 지냈고, 홍길동전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균 역시 형조, 예조 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그녀는 어릴적부터 놀라운 글로 찬사를 받았으며,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한을 시에 담아 한탄하며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미처 피지도 않은 나이 15세에 김성립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김성립의 방탕한 생활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고, 반면 김성립은 늘 재주가 빼어난 자신의 부인 난설현에게 열등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시덕에서는 밖으로만 도는 아들과 아들보다 뛰어난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았다. 난설현에게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모두 한 해 차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 - 곡자 哭子 -

去年喪愛女 지난 해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今年喪愛子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  
哀哀廣陵土 슬프고 슬픈 광릉의 땅이여  
雙墳相對起 두 무덤 마주 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

蕭蕭白楊風 백양나무 숲 쓸쓸한 바람.  
鬼火明松楸 도깨비 불빛은 숲속에서 번쩍이는데  
紙錢招汝魄 지전(紙錢)을 부려서 너의 혼을 부르고  
玄酒奠汝丘 너희들 무덤에 술 부어 제 지낸다.

應知弟兄魂 아! 너희 남매 가엾은 외로운 혼은  
夜夜相追遊 생전처럼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니  
縱有腹中孩 이제 또다시 아기를 낳는다 해도  
安可冀長成 어찌 능히 무사히 기를 수 있으랴.  
浪吟黃臺詞 하염없이 황대의 노래 부르며  
血泣悲吞聲 통곡과 피눈물을 울며 삼키리.

그녀는 27세 되던 해에 자기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자신의 모든 작품을 태워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난설현의 글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여 동생 허균이 모두 태워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 규원가 閨怨歌 -

엇그제 저멋더니 흥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서른 말슴 하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야 이 내 몸을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은 못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願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冤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sup>1)</sup>, 장안(長安) 유희(遊俠) 경박자를 꿈곤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얏더니, 년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꺾소나. 스스로 참괴(慙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말가 곳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업시 나가 잇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굿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초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면, 열 두 새 김도 길사 설흔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근(梅花) 몇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제 자취 눈 석거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드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둘러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셋거 타니, 소상(瀟湘) 야우(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sup>2)</sup>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소리 넷 소리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적막(寂寞)하니 누 귀에 들리초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이 되야 구비구비 썩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솜의나 보려하니 바람의 디는 닢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七月) 칠석(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手)<sup>3)</sup> 가렸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썩쳐는고. 난간(欄干)의 비겨서서 님 가신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쳐잇고<sup>4)</sup>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디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른 사람 수 업다 흐려니와 박명(薄命)흔 홍안(紅顏)이야 날 가드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현대어 풀이>

### ■ 기- 과거의 회상과 늙음을 한탄

엇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어릴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늙은 뒤에 설운 사연 말하자니 목이 멘다.

☞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1) 月下氷人の 준말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노인

2) 무덤앞에 세우는 망주석

3)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작은 터럭 조차도 가라앉고 마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4)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는 뜻이지만 자기 눈에 눈물이 난다는 뜻임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불교의 윤회 사상)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집간 뒤에 남편 시중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결혼을 운명으로 여기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 ☞ 과거(젊은 시절) 회상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 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다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 곧 세월이 벼들의 벼 사이에서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밍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늙고 외로운 신세 자탄

■ 승- 임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서글픈 심회

여러 사람이 떴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 남편에 대한 원망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님의 얼굴을 못 보거나 그림이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 비는 무슨 일인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

■ 전- 거문고로 달래는 외로움과 한

돌이켜 여러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 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댓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만에 찾아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마는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 속이 굵이굵이 끊어졌도다.

## ■ 결-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입을 기다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 수풀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설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숨막히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희생당한, 빼어난 미모와 재능의 소유자인 허난설헌의 아픔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녀의 얼마 전해 지지 않는 몇 편의 시와 그림 속에서 배어 나온다. 당대의 학자였던 오빠 허봉에게서 "두보의 소리를 네게서 들을 수 있으리라"라는 극찬을 받았던,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천재 허난설헌의 삶은 곧 남존 여비, 여필 중부 등의 유교적 사상과 가치관에 희생된 슬픔이다.

# 女性과 韓屋 -허난설현 생가 중심으로 고찰-

강릉 여성의 전화 : 경 난 수



### 채련곡

秋淨長湖碧玉流	추정장호벽옥류
蓮花深處繫蘭舟	련화심처계란주
逢郎隔水投連子	봉랑격수투련자
或被人知半日羞	혹피인지반일수

가을 호수 맑고 넓어 푸른 구슬처럼 빛나는데  
 연꽃 우거진 곳으로 배를 띄웠네  
 물건너 계신 님에게 연꽃 따서 던졌는데  
 혹시 누가 봤을까봐 한나절 부끄러웠네

## 들어가는 말

한옥이란 우리 민족의 마음씨와 멋이 깃들여져 있는 삶의 공간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온돌 난방이 시공되며 좌식 생활에 알맞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옥은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삶의 문화가 일군 결과물이므로 오늘에 사는 우리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켜져 내려온 독특한 주거 문화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옥에는 건축 자료에 따라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등 삶의 방식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 기후와 풍토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집은 사람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백 년 전에 세워진 집이라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 있고,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조되며 손질되는 과정에서 삶의 변천 과정도 읽어낼 수 있다.

우리의 전통 건축은 대부분 목조 건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거의 소실되어 남아있는 건축물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건축물 중에는 공공성을 띤 궁궐·관아·향교·객사, 그리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사찰이나 사당 그리고 일부 명문가의 건축물 등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보호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맥을 지켜온 몇 안 되는 살림집들을 애착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그들의 숨소리를 느껴봄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서는 강원도 문화재 59호로 지정된 허난설헌 생가를 중심으로 한옥의 아름다움과 그와 관계된 삶의 형태, 그리고 여성과 관계된 한옥의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 韓屋에 대한 종합적 고찰

1. 한옥의 재료 : 자연물
2. 한옥의 종류 : 초가집, 기와집, 너와집, 귀틀집
3. 한옥의 장점(무공해)
  - 1) 자연과의 조화
  - 2) 채와 채의 어울림
  - 3) 인간 중심적 공간 배치
  - 4) 빛과 바람과 여백의 미
4. 한옥의 특징
  - 1) 기단이 높다 → 습기 차단
  - 2) 처마가 깊다 → 차양 기능
  - 3) 인격이 있다 → 우리 몸과 조화로운 크기로 설정
  - 4) 난방이 자연 친화적이다.
5. 전통적인 구조
  - 1) 기초 : 기단, 초석
  - 2) 뼈대 : 기둥, 도리, 대들보
  - 3) 지붕 : 추녀, 서까래, 기와
  - 4) 수장 : 마루, 벽채, 창호
  - 5) 마감 : 온돌, 반자
6. 한옥의 꾸밈
  - 1) 건축 장식 : 방의 마감, 방의 내부 장식, 바닥, 창호 장식, 지붕 장식
  - 2) 수장 공간 : 벽장, 뒤주, 과방, 고방, 광, 곳간, 움
  - 3) 정원 시설 : 나무, 화단, 텃밭
  - 4) 부대시설 : 장독대, 우물, 담장, 뒷간
  - 5) 작업 공간 : 찬방, 반딧간
7. 한옥과 儒教 사상 그리고 女性의 삶
  - 1) 天圓地方 思想
  - 2) 内外法 : 남녀의 생활공간 구분
    - ① 안채 : 여성 중심
    - ② 사랑채 : 남성 중심
  - 3) 孝 사상 : 대가족 제도
  - 4) 신분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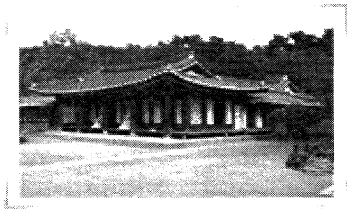
① 상류층

- \* □자 또는 ㄷ자형의 기와집
- \* 대문 · 중문 · 소문 · 협문을 배치
- \* 양반과 천민이 함께 기거
- \* 기능과 미를 반영

② 하층민 : -, ㄱ, ㄴ자형, 대부분 초가집, 사립문, 기능이 강조

5) 풍수지리 사상 : 배산임수

### 허균. 허난설헌 생가



이 집은 조선 시대의 여류시인 허난설헌이 태어난 곳이라고 전해지며,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59호로 지정되어 있다.

넓은 평지에 안마당을 중심으로 □자형을 이루고 있는 이 집은 집 전체를 두른 담장에 의하여 각 채마다의 독립성과 기밀성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양반가의 한옥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랑채는 잘 다듬어진 장대석 기반을 바탕으로 전면 한 쪽에 치우쳐 마루를 들였다. 팔작 기와지붕의 높은 처마를 갖추고, 안채 마당과 사랑채 마당 사이에 담장을 둘러서 각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안채는 전면 다섯 칸 측면 두 칸 규모의 겹집으로 마루가 전면 한쪽에 설치되어 있다.

각 채의 마당이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만큼 각 마당의 정원 조경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한옥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며 주변의 솔밭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유년의 난설헌의 모습이 절로 떠오르게 하여 정겨움을 더해준다.

### 1. 독립적 구조물의 분류

※ 상류 주택 : 신분별 · 남녀별 · 장유별로 공간을 분리하여 대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대가족 형태를 고려해서 공간을 배치

1) 행랑채

① 상하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간을 다르게 배치

② 하층민이 기거한 공간

\* 바깥 행랑채 : 신분이 가장 낮은 머슴들이 기거

\* 중문간 행랑채 : 중간 계층인 청지기가 거주

2) 사랑채

①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

②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

③ 이웃이나 친척간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자녀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

- ④ 남성들의 문화생활을 즐기던 공간
  - ⑤ 조선 시대에는 사랑방 문화가 많이 발달
- ※ 상류 주택의 사랑방
- ① 기거와 침식 외에도 독서 · 예술 활동 · 접대 등의 공간
  - ② 금욕적인 유교 생활을 지향하는 선비의식 반영

### 3) 안채

- ① 집안의 주인 마님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
- ② 출산과 임종 등 집안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던 공간
- ③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
  - \* 여성들의 사회 생활을 꺼려 남편이나 친척 이외에는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등 외부와의 출입을 제한하던 사회상 반영
  - \* 가족들의 의식주를 전담하는 공간
  - \* 의복과 침구류 보관을 위한 수납용 가구 배치

### ※ 신라 사회

안방: 한 가문의 조상신을 모시는 신관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남성은 사랑방에 기거하면서 대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저지하거나 선별해서 출입을 허용하는 입장. 즉 사랑방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강조

- 4) 곳간채 : 규모가 큰 중상류층에서 오래 저장해두어야 할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 용품을 저장 보관하는 건축물

## 2. 기능적 분류

- 1) 대청 : 조선 시대 상류 주택의 의식과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공간.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고안된 구조물
- 2) 방 : 폐쇄적인 의미를 지닌 개인적인 공간
  - 밤 ⇒ 구들 방바닥 위에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는 공간
  - 낮 ⇒ 방석에 앉아 지내는 좌식 생활 공간
- 3) 사랑 : 집안의 가장인 남자 어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
  -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
  - 이웃과 친지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
  - 자녀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
- 4) 부엌 : 각종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
  -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의 안방에 가까이 위치
  - 2-3개의 아궁이를 설치
- 5) 찬방(찬마루):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을 이곳에서 상에 올려 안방이나 사랑방에 내 가거나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

## 3. 부수적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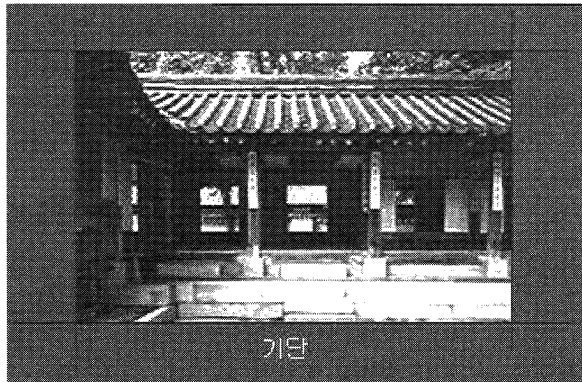
- 1) 벽장 : 방에서 사용하는 생활 용품의 수납 공간
- 2) 다락 : 귀한 음식이나 가재 도구 등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

### 3)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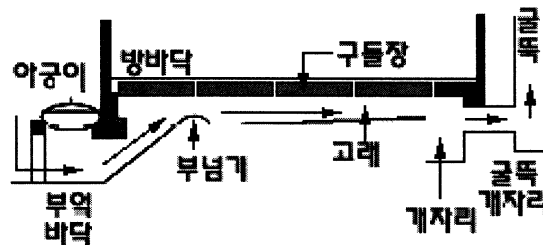
- ① 상류층 : 나지막하고 은은한 장식을 하여 시적 정취를 풍김  
담장을 장식한 무늬는 풍요와 행복을 기원
- ② 서민층 : 집의 안팎을 구분하는 기능  
※ 단절의 의미보다는 열어놓고 통과하는 공간으로 이용
- 4) 출입문 : 대문, 중문, 소문, 협문

## 4. 세부적 구조물

- 1) 기단 : 우천시에 빗물이 튀는 것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 방지 기능. 권위의 상징



- 2) 기둥 : 원기둥, 각기둥
- 3) 창 : 머름대 위에 설치되거나 크기가 문보다 작은 것
- 4) 창호지 : 공기를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에 유리
- 5) 문 : 위치나 용도에 따라 구성 및 모양이 다양
- 6) 초석
  - ① 막돌 초석 :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사용된 것
  - ② 다듬돌 초석 :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어서 사용
- 7) 온돌 : 계절적 온도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 고유의 난방 형태



### 8) 지붕

- ① 재료 : 짚, 나무껍질, 기와
- ② 지붕 위 : 취두, 용두, 잡상 등을 두었고, 귀면 등을 장식
- ③ 모양 :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 지붕, 사모 지붕, 육모 지붕, 팔모 지붕, J자형 지붕, 십자형 지붕

※ 허난설헌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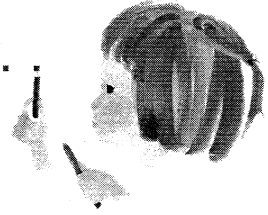
- 1563(명종18년) : 강릉 초당 생가에서 초당 허엽의 삼남 삼녀중 셋째딸로 출생  
8세(1570, 선조3년) :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었으며, 뒷날 주옥같은 시 213수를 남김  
15세(1577, 선조10년) : 난설헌이 서당 김성립에게 시집간 것으로 추정  
23세(1585, 선조17년) :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 『몽유광산산』를 지음  
27세(1589, 선조21년) : 사망(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경수산)  
1590년11월(선조23) : 동생 허균이 친정에 흠어져 있던 난설헌의 시를 모으고, 자신이 암기한 시를 모아서 『난설헌집』 초고를 만들고, 유성룡에게 서문을 받음  
1592년(선조25) : 난설헌의 남편 김성립이 임진왜란에 참가하여 전쟁중에 사망.  
1598년(선조31) : 정유재란 때 명나라에서 원정 나온 문인 오명제에게 허균이 난설헌의 시 200여편을 보여줌. 이 시가 『조선시선』 『열조시선』 등에 실림.  
1606년(선조39년) : 허균은 이 해 3월 27일 중국사신 주지번, 양유년 등에게 난설헌의 시를 모아서 전해주어 『난설헌집』이 사후 18년 뒤에 중국에서 간행.  
1607년4월(선조40년) : 허균이 『난설헌집』을 목판본으로 출판.  
1711년 : 일본에서 분다이야 지로베이에 의하여 『난설헌집』이 간행.  
1913년 : 허경란이 난설헌의 시를 읽고 감화받아 자신이 소설헌이라고 칭하며 시를 지은 『소설헌집』이 활자본으로 신해음사에서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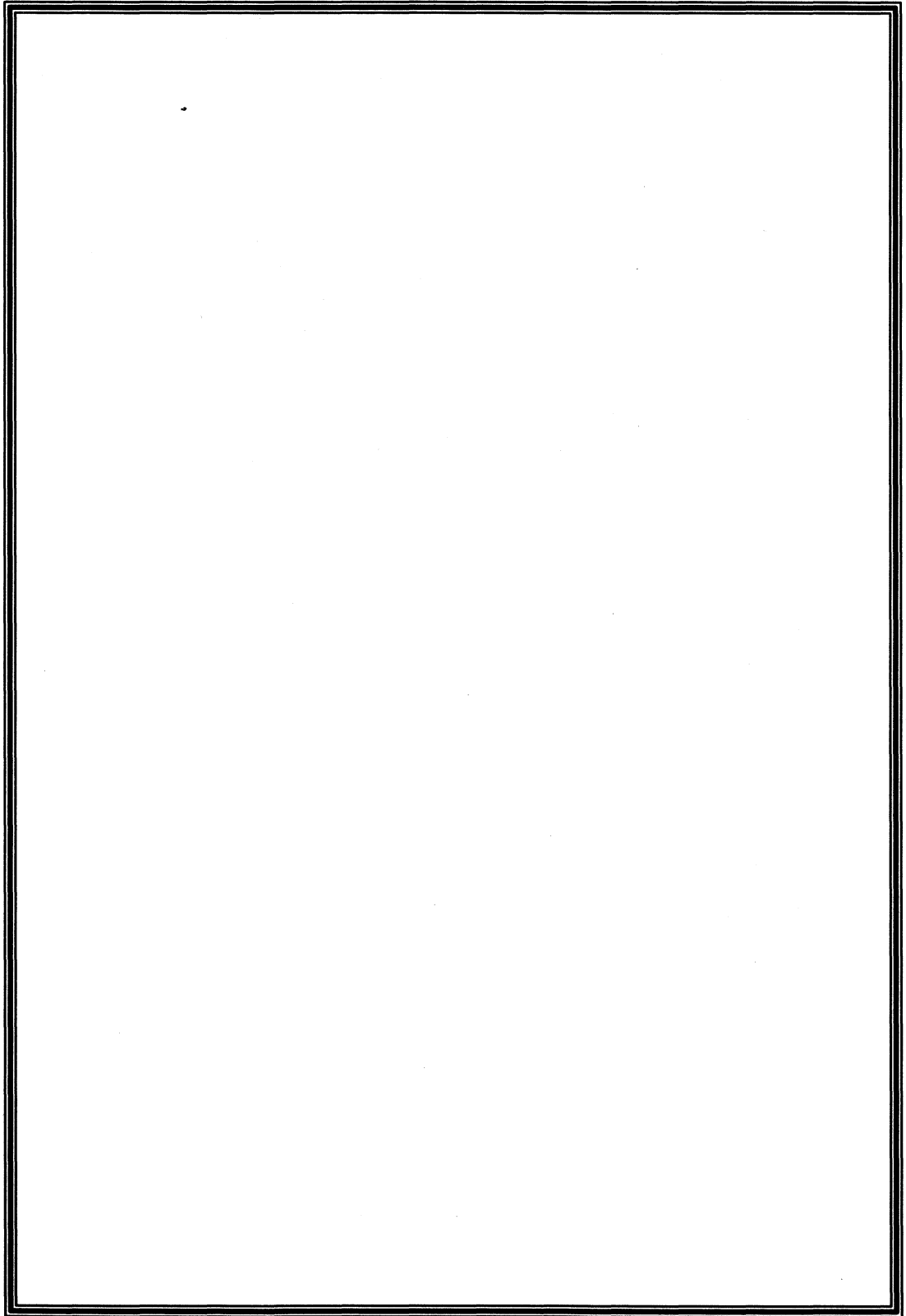
참고 자료 : 윤미화 「전통건축 - 그 안에서의 여인의 삶」



7월 12일 흩어진 기억 여기 다시 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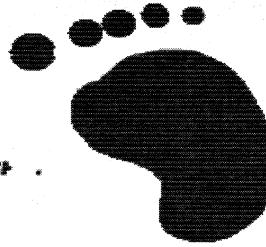
추억을 남기고, 글을 쓰고.





7 월 13 일

미 래 를 향 해 소 다 .



시간	일정
7	7:30 - 기상
8	8:00 - 식사
9	수요시위 준비
10	
11	일본 대사관으로 출발
12	수요시위 참가
1	홍대로 출발, 식사
2	해단식
3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수요시위

1990년 11월 16일 37개 여성 단체와 개인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수요시위>

1992년 1월부터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며, 22개 회원단체 30여개의 협력단체들이 돌아가며 주관한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국내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과 평화 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 2005년 7월 6일 현재 664차 수요시위가 진행되었다.

### <생존자 복지 활동>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노령화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생존자들을 돕기 위한 의료, 상담, 인권 캠프, 위로회 등을 통해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국내·국제적인 활동>

한국정부차원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하여 92년 1월 24일 외무부내에 '정대협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정부 각처가 문서자료를 조사하고 내무부와 대한 적십자를 통해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았다. 대부분 생존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이었으므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을 촉구하여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일본전범의 출입국금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대외외교 및 국제기구 활동에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죄와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활동하였다.

국제적으로는 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여 인권 유린의 문제로 확산하였으며 전범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유엔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법률가 협회,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피해국과 아시아 연대회의 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며 세계에서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졌던 폭력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일본이 유엔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 <명예와 인권의 전당 기념관 건립사업>

현재 정대협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피해 상황 및 운동을 기록 전시하여 미래세대에게 역사·평화·인권·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모금과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피해상황 기록, 영상자료, 사진자료,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7월 13일 미래를 향해 쏘다.

추억을 남기고, 꿈 꿈 쏘고.



## 기행에 더욱 도움이 되는 책들

### “전쟁과 여성”



저자: 김현아      출판사: 여림 언덕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살려낸 책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기억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에 따라 '국민'과 빨갱이가 구분되던 시대를 거쳐 왔다. '사실'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시하는 국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당해야 했다. 한국전쟁 중에 국군이나 경찰, 민간 치안유지단, 미군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이 공적 기억에 동의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전쟁을 겪은 '그녀'들의 다른 기억을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다. 후반부에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전쟁 속의 여성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또한 여성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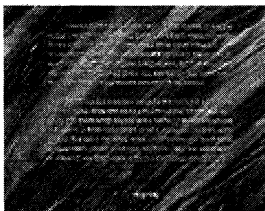
###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저자: 이덕화 외      출판사: 예림 기획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한국 여성문학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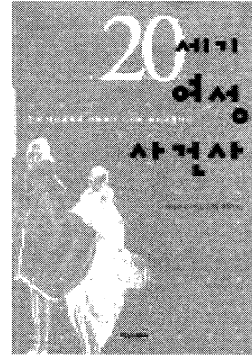


한국여성문학을 개관하고 페미니즘 이론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 현대 여성문학의 실제 양상에 대하여 계몽과 자유연애, 민족과 계급, 전쟁과 개발독재 등의 키워드와 연대기적 구분을 결합시켜 사회를 바라보는 소설 속 여성들의 시선을 담았다.

## “20세기 여성사건사”

저자: 길밖세상 · 출판사: 여성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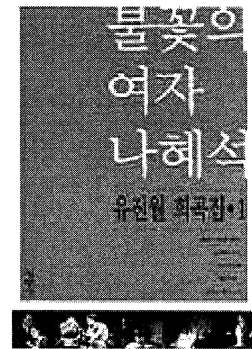
20세기 한국 여성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일제시대 기생, 나혜석 이혼사건, 전쟁미망인 문제, 자유부인 논쟁, 박인수 사건, 가족법 개정 운동,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황혼 이혼 등 파격적으로 기억되는 사건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난 세기가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명했다.



## “불꽃의 여자 나혜석”

저자: 유진월 · 출판사: 평민사

<그녀에 관한 보고서>와 2000년 문예진흥원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받은 작품인 <그들만의 전쟁>, 2000년 '올해의 한국연극 베스트 5' 작품상을 수상한 <불꽃의 여자 나혜석>을 비롯하여 섬세한 여성주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통찰력 있게 제기한 작품 총 5편이 수록되어 있다.



## “공선옥 마흔에 길을 떠나다”

저자: 공선옥 · 출판사: 월간 말

집에 있는 세 아이들을 나두고 마흔이 되어 길을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도봉장수 지덕복 할머니를 따라나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삶에 얽혀진 고난의 무게에 휘청이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깨달음을 얻는다. 이처럼 힘들고 고되지만 끝까지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기행에 더욱 감동을 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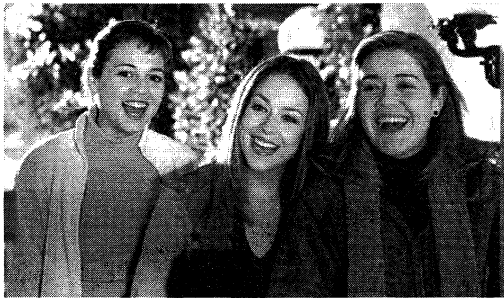
###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감독: 피터 웨버

1665년 네덜란드 델프트. 16세 소녀 그리트는 아버지가 사고로 시력을 잃자 화가 베르메르 집의 하녀로 들어간다. 베르메르의 작업실을 청소하기 위해 방에 들어선 순간 그리트는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런 그녀를 본 베르메르는 신선한 영감을 얻게 된다. 베르메르는 그리트에게 색을 보는 법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가까워진다.

### “얼마는 여자를 좋아해?”



감독: 다니엘라 페허만, 이네스 파리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해본 엘비라. 그녀는 아빠와 이혼한 후 혼자 사시는 엄마 소피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언니 히메나, 동생 솔과 함께 한자리에 모인다. 그때 상기된 얼굴로 사랑에 빠졌다는 엄마의 고백. 그런데 스무 살이나 어린 여자란다!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려면 이별을 시켜라?!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내심 당황스러워하는 세 딸. 큰 딸 히메나는 혹시 엄마의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닐까 의심하고 철없는 막내 솔은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엄마 애인을 꼬셔보자고 부추기는데 평소 존경하던 작가 미구엘을 만난 후 사랑을 느낀 둘째 딸 엘비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 “프리다”

감독: 줄리 테이머

1922년 멕시코. 남미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멕시코의 한 마을. 세상 모든 것이 흥미로운 탐구 대상으로만 보이던 사춘기 소녀시절, 버스와 전차가 부딪치며 일어난 인생의 첫 대형사고는 첫 번째 사랑의 실연과 함께 그녀의 온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상처를 남겼다. 그 후 프리다는 침대에 누워 두 팔만을 간신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깁스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몇 년 후, 프리다는 성숙한 숙녀의 모습으로 당대 최고의 화가인 '디에고'를 찾아가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한다. 직접 내려와서 보라는 당돌한 그녀의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낀 디에고는, 결국 프리다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디에고와의 결혼이 자기 인생의 두 번째 대형 사고이자 최대의 축복이 된다.

“ 난 마지막 떠나는 날은 즐거웠으면 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

## “여자, 정혜”

감독: 이윤기

자신의 일만큼이나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체국 여직원 정혜... 직장에서 멀지 않은 그녀의 작은 집엔 TV 홈쇼핑으로 사들인 물건들, 아파트 화단에서 주워온 어린 고양이가 그녀를 기다린다.



정혜에게 어린 시절이란, 한 손엔 연필과 다른 한손엔 담배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엄마의 조용한 모습과 성폭력이라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억뿐. 기억이 삶을 엄습함을 느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정혜에게, 어느 날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랑이 찾아온다.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그녀 마음속 동요... 비로소 시작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윤미진 글·곡

C G Em Am F C F G  
 사 람 하 나 만나고 싶 다 더 운가-슴- 빈 몸뚱이로-  
 F G C-3- Am F G G7 C  
 미 더운 눈빛 서로 마주치며 그 거친 손잡아- 보고 싶다 사  
 C G Em Am F C F G  
 람 하 나 만나고 싶 다 굳 이 여 러 말- 하 지 않 아 도-  
 F G C Am F G  
 나 의 껍질 너 의 벽 주 지 없 이 허 물 고- 그 저 그 대 로 의 당 신 을-  
 F G C F G C C7  
 만 나 고 싶 다 아 열 마 나- 긴 시 간 이 었 나-  
 F C G F G  
 믿 지 못 하 고- 두 리 위 하 기 만- 했 던 날- 들- 아 열 마 나- 지 루 한  
 C C7 F D7 G  
 방 황 이 었 나- 늘 내 결 에- 있 던 당 신 인 것 을-  
 C Em Gm F  
 나 는 네- 가 되 고 우 리 가 되 고- 좋 은 생- 각 은 서 로 나 누 고  
 Dm7 G C Em Am F G F G C  
 힘 들 때 면- 든 든 한 어 깨 빌- 러 주 며 단 한 번 의 인 생 을- 함 께 살 아-

윤미진 1집

# 힘모아 힘을줘

같이정규  
곡안희경



이제 더 이상 - 침묵하지라 더 이상 - 한숨짓지마 고운



비 단 에 싸 인 글썽의세월 냇 이 비 리 - 이제



당 당 히 일 어 서 크 게 의 처 복 당 당 히 일 어 서 세 상 바 라 와 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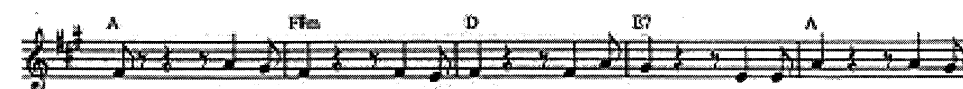
좌 빛 의 눈 고 단 단 환 베풀 은 물 으 로 예 프 러 밝 아



오 는 세 세 상 - 회 망 의 세 아 침 - 슬 로



한 어 마 니 - 대 지 의 딸 들 아 힘 모



아 힘 을 줘 힘 모 아 힘 을 줘 힘 모 아 힘 을



줘 세 세 상 이 때 어 나 네 힘 모 이 대 이 난 다

# 믿음의 언덕

글이재민  
곡안희영

A C#m D E7

우리가 서 있는 - 이곳은 - 믿음의 언덕 - 동서를

A C#m Bm E7 A

순결한 - 영롱한 - 눈빛을 보라 - 비록

D C#m Bm E7 A

나이 제 눈이 부시도록 아픔 담지 않아도 함께

D C#m B7 E7

가는 이 길고 - 단하고 힘 들지라도 - 차별의

A B#m Gm E7

비 억압의 비 깨뜨리고서 - 아

A C#m D E7

뜨거운 가슴 맞 - 짙은 두 손 뜨거운 두 눈 빛 - 새벽

A C#m D E7 A

안개 풀리고 평 - 화의 땅 그곳 관히 동드리라 아

A C#m D E7

뜨거운 가슴 맞 - 짙은 두 손 뜨거운 두 눈 빛 - 새벽

A C#m D E7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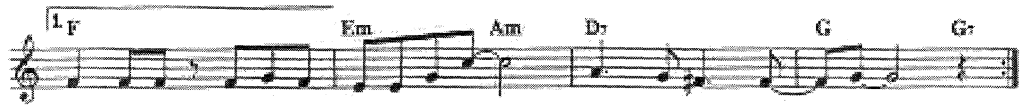
안개 풀리고 평 - 화의 땅 그곳 관히 동드리라

# 햇살아래

김민정  
김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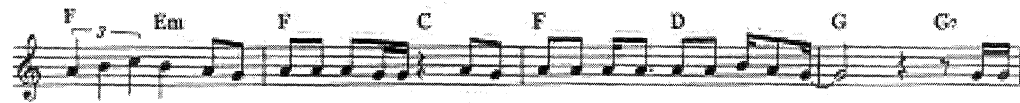
언제나 한밤 - 중 - 앞도 뒤도 보이지 않았던 - 지난  
아침은 언 - 세 - 소리 도 - 없 이 - 왔을 까 - 그리



빛 해는 전 디 기 힘들었던 - 절 망 의 시 - 간 -



나 잊지 마 하얀 햇 살 오 기 전 - 이 두 운 밤 - 을 -



우물처럼 어두웠던 세월이 이제 나에게도 길을 보여줘 - 끊이



끊 이 말 아 놓 은 세 월 아 이제 나 에 게 도 길 을 열 어 줘 -



빨래처럼 무거웠던 절 망 을 햇 살 아 래 널 어 두 고 후 후 이제



우리 앞 에 펼 처 진 행 복 한 날 들 에 게 - 인 사 들 보 낸 다

[majusum.cyworld.com](http://majusum.cyworld.com)